(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03 1981년12월23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December 23,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FBI 일부교포 간첩혐의 조사

"대상자신원·체포여부 밝힐단계 아니다"

인도적 북한방문은 간섭의사 없음 밝혀

(LA지사 발)미연방수사국(FBI)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일부 한인들에 대해 간첩활동혐의와 관련,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가·N·베스트 FBI LA 지부장은 지난 15일 웨스트우드의 FBI사무실에서 본보기자와 단독회견, "재미한국인들이 관련된 몇몇 케이스의 간첩혐의사건을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히면서 혐의 내용과 대상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지부장은 "FBI는 재미한국인들의 인도적 북한방문과 개인의 사생활은 조금도 간섭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 "우리는 방문의 목적이나 방문후 미국에 돌아와서 모종의 임무(Mission)가 연방법에 저촉될 경우에만 수사한다"고 밝혔다.

간첩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중 체포나 연행된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베스트 지부장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FBI가 수사하는 간첩혐의 내용은 미중앙정보국(CIA)이 관할하지 않은 미국내에서의 정보활동(Intelligence Act)이라고 설명한 베스트 지부장은 "미주에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면의 간첩활동은크게 문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주내에서 어떤사람이 북한관계자(예로서 UN북한대표부), 또는 기타 외국기관 요원과의 접촉을 통해 모종의 임무가 거래될 경우, FBI는 이같은 케이스에 관심을 갖는다고설명했다.

코리아타운의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베스트지부장은 "우리는 경찰을 비롯해 연방검찰청및 타연방조사기관과 공동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FBI를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반드시조직범죄는 분쇄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1시간동안 진행된 회견에는 FBI LA 지역본부 존·후스 공보관이 배석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본보기자와 회견하고있는 베스트

"외국이혼판결 유효"

한국법원 유권해석 부부쌍방 출두 안해도 돼

판결문·신고서만 공관제출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교포여성은 한국가정법원의 판결없이도 바로 친가호적으로복귀할 수 있으며, 공관에서의 이혼신고는 배우자없이 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10월 16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지침에 대한 재외 공관의 질의에 대해 한국대법원의 유권해석에서 밝혀졌다.

지금까지 재외공관을 통한 이혼신고는 외국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부부 쌍방이 공관에 출두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국내 가정법원의 확인판결 절차를 거쳐서 호적정리가 가능했었다.

토론토총영사관의 여권담당 박종선부 영사는 「이제부터는 신고자가 법원판결문 사본과 이혼신고서를 공관에서 확인받은 후 바로 호적지로 보내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무부가 재외공관에 통보한 이혼 지침서는 특히 여성이 친가로 복적하는기록 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도하는 폴랜드인-바르샤바의 솔리대리티 본부앞에서 한 노동자가 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있다.

폴랜드주교 교황 알현

군정, 성직자체포등 교회탄압시작

노조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폴랜드 군사정권은 21일 성직자체포, 이사집전 방송중지등 폴랜드 캐톨릭교회에 대한 탄압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신부들이 속속 체포, 여지껏 실시됐던 폴랜드 라디오방송의 일요미사 중계방송이중단되었으며, 교회 당국이 더이상 군사정권에 반대할 경우 보복조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받았다고 한다.

한편 폴리쉬 주교회의간사인 브로니스로·다브로브스키는 교황과 면담을 위해 폴랜드로부터 로마에도착했다.

다브로브스키주교는 교황에게 보내는 발렌싸의서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는 당국으로부터 발렌싸를 2번이나 만날수 있도록 허용됐었다고 한 프렌취 여행자가 밝혔다.

현재 계엄령하에서 집회가 허용된 곳은 오직 교회뿐으로 지난20일 일요미사때 폴랜드인들은 빈틈없이 교회당을 메우고 폴랜드로마캐톨릭 최고지도자 조셉·글렘프추기경의 호소문을 경청했다. 글렘프추기경은 국민들에게 이성을 되찾고 잠잠해 줄것을 호소했다.

글렘프추기경은 국가와 교회의 장래를 보호 하기 위해선 평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그는 "폴랜드는 군사정권에 의해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다 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작년도부터 전국 방송됐던 일요미사는 정부당국와 솔리대리티노조에 대한 양보조처로 시작됐었다.

노조소식통은 당국은 계엄령선포직후 글렘프 추기경, 발렌싸, 보이첵, 야르젤스키수상간의 회담을 원했으나 글렘프추기경은 그가 거처하는 궁에서 열려야 하며, 그의 자문인들도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 결렬됐었다.

교회소식통은 20일 노동운동에 교회가 깊이 관여한 「그단스크」와 「브로클라브」등지에서는 성직자들이 구타를 당하는 등 험악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소식통은 서방측에서 계엄선포후 체포구금된 폴랜드인 총수를 15,000~75,000명으로 추정하나 현재 확실히 밝혀진 수는 1,100명이라고 말했다.

랑콤화장품 보너스세일
$15이상 구입시 $15 가치의 랑콤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시일 : 12월24일 선착순 25명에 한함
주소 : 620A BLOOR ST. W.
전화 : 534-7791, 534-9977
골드핑거선물센타

맹렬여성 권총강도 퇴치

용감무쌍한 22세의 여성

주간女性

이 20일 권총강도 2명을의자와 감자껍질 벗기는 기구로 퇴치했다.

경찰은 데번포트·로드(Davenport Rd.)에 있는 레스토랑 믹키스·립스(Mickey's Ribs) 매니저 로리·베얀코트양이 20일 새벽1시55분경 권총을든 강도 2명이 레스토랑에 들어와 돈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하고 대신에 의자를들어 이들에게 던진 다음 감자껍질 벗기는 기구로 몰아 내쫓았다 고 말했다.

베얀코트양은 다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스키장 안내, 무료전화

책자도 발간 $3.95

스키관광의 시즌이 돌아왔다.

온타리오 관광산업성 은 온타리오내의 스키장 안내제도를 보강, 스키장의 날씨, 적설량, 교통등을 가르쳐 주는 전화써비스를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현재의 적설량 기후등은 물론 작년도 날씨상태및 스키장 콘디션등도 알수있다.

관광산업성의 배리지역부에는 미리 녹음된 메세지가 (416)-364-4722를 통해 나오며, 그외의 정보는 705-726-0932또는 Toll Free 1-800-268-3735로 하면 된다.

한편 스키애호가들을 위한 스키안내 책자도 나왔다. 148페이지에 달하는 "Canadian Ski Directory"는 모든 스키장의 시설 숙박관계 레슨, 주위관광 정보등이 사진과 함께 실려있다.

캐나다 스키협회가 추천하는 이책은 스키운동구점 또 시중책방에서 $3.95에 구입할 수 있다.

◁사 고▷

25일자 크리스마스 특집 증면관계로 24일자 현지판은 25일자와 합판으로 발행합니다.

단 모국판은 종전 대로 24일자도 발행됩니다.

(편집부)

<사 고>

= 은세계에의 초대 =

초보자를 위한 스키 강습회

호수의나라, 백설의 왕국 캐나다의 겨울은스키와 낭만의 계절입니다. 이에 여러분을 설인(雪人)의 양지로 초대하오니 많은 참가를바랍니다.

때 : 82년1월28일(목)~30일(토)2박3일
곳 : 퀘벡주에서 가장 큰 명산 MT. 세넹
회비 : $180(1인당)※개인별로가면 $280소요
※대절버스(그레이 하운드)
—콘도미니움에서 숙식
—2일간 케이블카 무료제공
—2일간 스키 무료교습
—하루저녁은 대절버스로 퀘벡시내 관광
정 원 : 신청(선착순)35명
신청처 : 한국일보사 광고부(533-2361, 2)
브랜돈 스포츠사(이건영 598-3732)

주최 : 한국일보사토론토
Brandon스포츠사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OMEGA
이번 X-Mas 선물은 미도파에서 준비 하세요.
오메가 데이

OMEGA

40% OFF

오메가시계
남, 녀 오메가 고급시계의 100여종 시계 다량준비하여 교민여러분께 염가로 특별 봉사합니다.

50% OFF

다이아몬드 귀금속(공인감정서 첨부)
투자용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지등, 에메랄드, 루비, 싸파이어, 진주, 비취, 오팔등
●혼례용 보석및 시계
약혼, 결혼 보석및 시계

이번 밍크, 모피 특별쇼 기간후에도 계속 여러종류의 우량품 밍크, 모피 제품등을 준비하여 연중변함없이 여러분을 모시겠사오니 왕림하여 주십시요.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SSH

새해 우편요금 대폭인상

국내17₵ →30₵, 해외35₵ →60₵

우편료 인상안이 연방각료회의에서 통과, 82년1월1일을 기해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17₵ 하는 1종 국내우편료는 30₵, 해외우편료는 35₵ 에서60₵, 종전에 국내우편료와 같았던 미국으로 가는 우편료는 35₵로 각각 인상된다.

21일 연방 각료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우편공사에서 제안한 우편료 인상안은 제3종 우편료에서만 약간의 수정이 있었을 뿐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등기우편료, 소포요금도 아울러 인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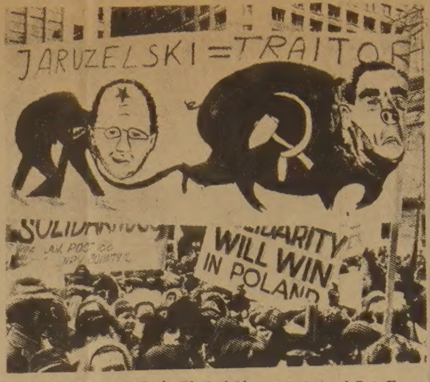
우편공사는 이미 인상안이 통과되기 전 새 국내우표를 발행, 29일부터 판매된다. 새 우표에는 종전처럼 우편요금이 표시되어있지 않고, 다만 알파벳 A로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A는 30₵를 뜻한다.

비록 국내에선 A가 30₵를 뜻하지만 해외로 가는 우표로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우편공사는 해외로 보내는 우편은 꼭 우편요금이 명시된 우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구 우편요금 대조표

내 역	구요금	신요금
국내1종 우편물 0~30g	17¢	30¢
〃 30-50 g.	26¢	45¢
속달	$1.00	$1.30
등기	$1.50	$1.85
성탄카드	15¢	30¢
3종 우편물	15¢	30¢
전보~50단어	$3.45	불변
소포2kg(4.4 lb.) 토론토~위니펙(1종)	$3.40	$4.00
〃 4종	$1.50	$1.75
미국가는 편지및 우편엽서	17¢	35¢
미국가는 성탄카드	15¢	30¢
해외항공우편 0~20g	35¢	60¢
〃 20-50 g.	63¢	93¢
해외봉함엽서	35¢	60¢
해외성탄카드	18¢	30¢



◆폴랜드군정규탄 궐기대회—바르샤바 다음으로 폴랜드인이 많이 살고있는 시카고에서 16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야루젤스키수상의 강압정치를 규탄했다.

리즈·테일러 7째 남편 워너와 별거
최다 이혼기록 경신에 안간힘(?)

(뉴욕) 6번의 이혼경력 이 있는 49세의 엘리자벳·테일러는 7번째 남편인 예비역 해군제독이며 상원의원 존·워너와 법적인 별거에 합의했다고 리즈의 대변인이 21일 발표했다.

첸·샘대변인은 둘사이의 관계는 아직도 우호적이며 이혼은 현재로선 생각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76년 12월4일 결혼한 이커플은 뉴욕에서 별거 발표를 하는 동안 워너의원은 워싱톤에 테일러양은 LA에 머물고 있었다.

이커플은 LA에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즐긴후 테일러는 런던으로 향할것이라고 발표됐다. 최근 테일러양은 LA에서 지난 5일 끝난 연극 "작은 여우들"에서 주연을 맡아 좋은 연기를 보였다.

테일러의 전남편은 콘라드·힐튼, 마이클·와일딩, 마이크·토드, 에디·휘셔, 리차드·버튼(2번)등이었다.

◇별거에 들어간 리즈·테일러양과 워너의원의 즐거웠던 한때.

캐나다 헌법안 개요 ④

〈청원서〉

24. ①이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② ①항에 명시된 청원을 받은법원은 이헌법에 명시된 권리침해사실에 대해명백한 증거를 갖고 재판을해야한다. 특별한 경우 정상을 참작 증거없이도 재판을 가질수 있다.

총칙

25. 다음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은 어떤 수정헌법이나 기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a. 1763년10월7일에 발표된 왕실선언(Royal Proclamation)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
b. 캐나다 원주민에게 보장된 권리와 자유.

26. 이헌법에 보장된 권리나 자유가 캐나다에 현존하는 여타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27. 이헌법은 캐나다의 전통적인 복합문화주의 강화와 보존에 입각, 해석해야 한다.

28. 이헌법에 명시안된 기타의 권리나 자유도 성(性)의 차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29. 이헌법에 명시된 어떠한 권리도 특정교계나 학교에 의해 부정될수 없다.

30. 이헌법에 명시된 주에 관한 법이나 주의회법등은 유콘지구와 노스웨스트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1. 이헌법은 어떤 단체나 기관의 법적권리를 확대시키지 않는다.

적용범위

32. ①이 헌법은
a. 유콘및 노스웨스트 지구를 포함, 의회 권한내의모든 문제는 캐나다 정부와 의회에 적용된다.
b. 각주 의회의 권한내의모든문제는 각주 의회와 정부에 적용된다.
②위의부칙①에도 불구하고 본법 제15조는 이 헌법이 발효후 3년이 경과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33 ①주의회는 주의회법으로서 본헌법 제2조나 제7조에서 제15조 까지에 명시된것을 특별히 규정할수 있다.
②이조 항에 명시된 어떤 규정도 이 헌법에의거, 선언됐을때 효력을 발생한다.
③부칙제①에 명시된 규정은 본헌법의 효력발생후 5년뒤, 혹은 규정에 별도 로 특별명시된'이보다 앞선날로부터 무효화 된다.
④주의회는 부칙①에 선포된 내용을 재규정할 수 있다.
⑤부칙③은 부칙④에 근거, 재규정 된대로 적용될 수 있다.

부기

34. 본장은 캐나다 인권및 자유헌법으로 불리워 진다.

제2부 원주민권리

35. ①현존하는 캐나다 원주민권리는 본장에서 확인된다.
②본장에서 명시하는"캐나다원주민"이란 인디언, 에스키모및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아를 포함한다.

한인골프협회
7대회장 김현모씨

◇김현모 씨

토론토 소재 한인골프협회(회장 정정홍)는 지난20일 인·온·더·파에서 열린 연말파티자리에서 2월초 임기가 끝나는 정정홍 회장 후임으로 한인연합상사 대표 김현모씨를 제7대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골프협회장 임기는 2년이다.

교 민 동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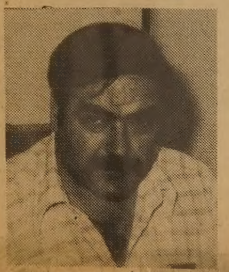
◆서춘봉(한의사)=만주하르빈에서 20년간 교수를역임했으며, 중국의사 자격증을 획득, 토론토 블루어 한인신용조합옆에 한약방을 개업한다.

서씨는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몽고, 소련말의 5개국어에능통하며, 교민들께 성심, 성의껏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화 : 530－1868

◇리자·알렉세이에바가 20일 마침내 그녀의 남편 알렉세이·세미오노프와 보스턴에서 감격의 재회를 했다. 그녀는 시부모인 소련반체제인사 안드레이 사하로르와 그의 아내의 단식투쟁끝에 소련당국으로부터 출국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이 곳에 체류하기위해 미국에 왔어요"라고 만면에 미소를 띤 알렉세이에바는 파리에서 막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그녀를 환영하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알렉세이에바(26세)와 세미오노프(25세)는 모스크바대학 재학시 서로만나 사랑을 나누다가 세미오노프가 미국으로 유학, 3년동안 헤어졌었다. 그동안 세미오노프는 몬타나주에서 알렉세이에바가 궐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으나 소련당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세미오노프는 사하로프부인과 전남편의 소생이다.

제5계절 한국과 이태리 공통점

안토니오·코레아



◇안토니오·코레아씨

한국과 이태리(알비) 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많은 한국인들이 종종 나에게 고향 알비얘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이태리 칼라브리아주의 내 고향 알비의 어떤 자취 속에 내가 한국인의 후예라는 증거는 없을까?"하는 관점에서 이다.

우리는 흔히 이태리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한반도중 남한은 동해, 황해, 대한해협의 3면이 바다요, 칼다브리아도 동쪽으로 아이오니안해, 서쪽의 타이르헤니안해, 남쪽으로는 메시나해협이 가로지르고 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남한의 중심부는 북위 36도선이요, 칼라브리아는 북위 38도선이다.

여기서 바로 나의 조상「안토니오·코레아」는 한국과 비슷한 기후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

문명의 자취를 수천년거슬러 올라가면 칼라브리아는 수십개국과 다수의 민족으로 구성됐었다.

칼라브리안 사람은 열심히 일할뿐 아니라 즐기고 놀 줄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신을 믿으며, 대부분이 가톨릭이다. 그들은 자기 가족을 중시하며, 친구들을 형제처럼 사귄다. 말을 중시하며, 약속을 잘 지키고, 열정적이다. 정치보다는 정의와 명예를 위해 싸운다. 낭만을 즐기며, 노래와 음악이 그들의 전통이다.

알비는 "실라"산 밑의공업자원은 없는 가난한 마을이다. 올리브를 기르며, 밤, 잣등의 과일을 생산한다. 양이나 염소를 기르며, 모직을 짜며, 그것을 생업으로 한다. 수십년전 까지는 누에고치를 길러 비단을 생산했다.

내 기억에는 할머니, 고모, 엄마가 매일같이 뽕나무잎을 따다가 누에고치를 길러 명주실을 생산, 비단 담요를 짜곤 했다.

음식은 다양하지는 않고, 감자, 쌀, 마카로니, 야채등이 주식이며, 많은 양념을 곁들인다. 마늘, 고추가루, 양파등이 음식에 쓰여진다.

주류로는 포두주를 집에서 담그며, 커피, 차, 알몬드쥬스, 오렌지쥬스등을 마신다. 달팽이, 해산물등도 즐긴다.

돼지를 집집마다 기르고, 돼지를 잡을 때면 친구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인다. 햇과일이 나오면 친척이나 친구집에 보내는 것이 전통이다.

종교행사중에서도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명절이다. 크리스마스 수주전부터 집집마다 나무를 가져와 마을광장에 쌓아 놓는다. 올리브나무뿌리, 소나무등이 주로 쓰인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부터는 '아침부터 불이 댕겨져 그 다음해 1월6일 아기예수가 태어나신지 12일째되는 날까지 계속 활활 탄다.

주부들은 숯덩어리 들을 주워다가 집안을 덥히고, 어린이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불꽃놀이를 즐긴다.

(계속)

독자여러분께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번창하고 평화스러운 신년이 되기를 빈다.

〈매일연재 소설〉 (111)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오호토는 또다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저녁하늘은 카일라신의 검은 분노처럼 뭉게구름이 끼어있고 해는 그 앞에서 조그맣게 줄어들고 있었다. 깊숙히 먼우주속에서 찬란한 햇빛이쏟아져 내려오다가 지평선위로 짙은 연기처럼 올라오는 먹구름에 가리워지고구름은 파란하늘위로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어디서인지 소나기가 올것 같은 컴컴한 산속에서 백여우 한마리가 처량하게 울어대자 맨 처음 늑대들이 해를 잃어버리고 슬프게 울던 소리처럼 호수주위로 메아리쳐 울렸다.

오호토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긴 메아리로 없어져 들리지 않았다.

"얼마후에 그 여인의 배가 생명을 주는 헤켄죽 때문에 불러왔고 남자의 정기도 애를 배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어졌읍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낳았는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었고 개들이었대요.

그녀의 자궁에서 네마리의 개가 태어났고 그 옛날에는 사람이나 짐승 이나 사람처럼 말을 해서 모두가 형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개들 역시 사람들의 형제였다나봐요.

이 남자와 여자가 살던 때는 멀리 서쪽에 위치한 내륙에 있는 큰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지냈읍니다. 얼마 안되어 이 바닷가의 캠프에는 여인이 쉴새없이 낳은 아이들로 차있었지요. 드디어 그남자는 이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리기 충분한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점점 쇠약해 졌으며 아이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느날 여인은자거 사슴가죽 장화를 벗어 들고 그안에 바람을 불어넣으니 요술처럼 그것이큰 배가 되었다나요. 그녀는 배를 바다위에 띄우고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모두 실었읍니다. 북풍이 불 때를 기다려 배를 띄워 놓자 바람은 배를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 여인의 시야에서 사라졌읍니다.

배는 지금 우리가

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숲으로 덮여있는 먼 남쪽 땅으로 떠내려갔지요. 거기서 배는 큰 강어구로 들어가서 모래사장 주위를 맴돌았읍니다.

배안에 타고 있던 많은 개들은 배가 고프기도 하고 배멀미를 해서 강 으로 헤엄을 쳐나가 숲속으로들어가 버렸읍니다.

그 이후부터 이들은 거기서 살았는데 그들이 오늘날의 잇킬릴-인디안들이지요.

아직도 북풍이 불어왔고 배는 모래사장 주위에서벗어나 더 남쪽으로 떠내려갔는데 얼마나 남쪽으로내려갔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한국일보
533-2361

물로나아오라!

협신기도원 개원3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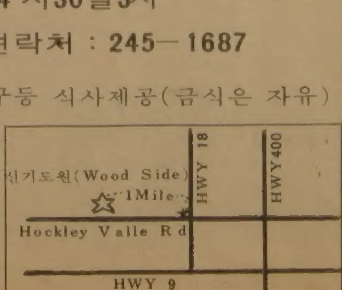
연말수양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없는 자도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것을먹을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이사야55 : 1~3)

강사 : 박경남 목사
일자 : 1981년12월28일4 시30일3시
장소 : 협신기도원 연락처 : 245－1687

준비물 : 성경, 찬송, 슬리핑 백, 담요, 세면도구등 식사제공(금식은 자유)

주최:협신기도원
후원 : 협신선교협회·
협신기도동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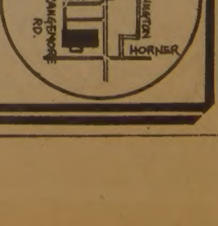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 에 한함 —

크리스마스(25일)금 휴업, 12월26일(토) 오후 4시까지 영업.
1월1일(금) 1982년 휴업.
※다른날은 정상영업 합니다.
LONG WEEKEND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그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염가특별 대매출을 실시중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



〈독자투고〉

「메시아」를 듣고

한 인 석
(런던 웨스턴대학 음대 3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도우소서."

지난 4일 매시·홀에 서 있었던 토론토한인합창단의 「제1회 메시아 대공연」을 지켜본 나의 심정이었다.

이민역사 10여년의 우리 한인사회를 자랑스럽게 빛내준 거창한 행사를 나는 가슴속에서 우러 나오는감사와 기쁨으로 참관할 수 있었다. 이 뜻깊고 대견스러운 행사를 바쁜 세파에서도 성황리에 치러낸 임원, 이사회, 합창단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박재훈박사께 무한한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

반년의 피땀어린 수고와 정열의 결정을 우라는 이곳 캐나디안과 다른 소수 민족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줌으로써 이땅에서 한국인의 문화수준과 긍지, 그리고 단결력과 집념을 과시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나 손에 땀을 쥐며 "…도우소서…"라고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제1회 공연이니 만큼 그것이 가지는 이민사적 의의, 선전효과, 혹은 홍분이나 기쁨등이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할 수있다. 그리고 위의 모든 것은 기대 이상으로 충분히 채워졌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 다른 것이 아닌 음악회인데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한 음악을 할 수 없었을까? 합창단이 보여주었던 무대 예식이나 성량은 결코 캐네디안 음악인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것이었다. 그러나 음악을 해석하는데조금만 더 신중히 시대적 배경과 음악성을 고려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빨간 색연필 하나만 가지고는 훌륭한 풍경화를그려낼 수 없듯이 음악도 한가지 음색만 가지고는 훌륭한예술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크(Baroque)음악의 중요한 요소 중

(1) Dotted Rhythm(♬♬와 같은 형식의 리듬으로서 12번 "우리위해 한아기" 22번 "어린양을 보라" 33번 "머리들라 문들아"의 첫부분등에 많이 나온다.)은가볍고 경쾌하게, 즉 Staccatto와 아주 짧은 16분음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무겁고 질긴 것이 되고 말았다. 특히 22번 "어린 양을 보라"에서는 리듬처리를 제대로 해준 오케스트라와의 재미있는 대조를 보여 주었다.

(2) Off-beat entries (멜로디가 박자머리에 나오지 않고, 박자 중간에 나오는것으로서 7번 "정결케 하시리" 26번 "양떼 같이" 의 첫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는 첫박자에 강하게 액센트를 주면 음악 전체의 균형을 잃게 된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박자 중간,즉 off-beat에액센트를 주게 된다. 즉 7번 "정결케 하시리"에서 첫자 "정…" 자가 박자 중간에 나온다. 이곳이 바로 액센트가 주어져야 하는 곳이다.

그래야만 음악이 균형잡힌 것이 된다.

(3) Polyphonic Music(대위음악. 즉 4번 "주의 영광" 28번 "저가 주를 믿으니" 에서 한 줄거리(Subject)가 모든 파트에서 돌아가며 나오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부분(Subject)과그렇지 않은 부분(Counter-Subject)이 있어서 연주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연주해야 깨끗한 음악이 되는 것이다. 대위법을 사용한 경쾌하고 가벼운 음색은 바로크음악의 매력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연주하자면 합창음악에도 기악적인 Staccatto, 혹은 Marcato주법을 요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는 음악이 브라암스의 낭만주의의 그것과 같이 되어 버린다.

또 바로크음악이란 우리가 아는대로 일정한 음량(Volume or Dynamics) 과 속도(Tempo)로 일관되어 있는 지루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도 변화무쌍한 음악적 요소가 있어서 우리에게 무한대의 연주가능성을 주고 있는 것이다.

「메시아」와 같은 대곡이 결코 지루해서는 안된다. 필자가 안타깝도록 서운했던 것은 이런 몇가지의 음악적 요소가 충분히 가 해져서 아름답게 소화된 음악을 듣지못한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 분노를 느낀 것은 오케스트라의 무성의로 일관된 연주를 듣는 것이었다. 일류급의 독창자들, 육개월에 걸친 단원들의 피땀어린 수고를 산산조각내는 그들의 연주를 볼 때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분노를 참아야 했다. 왜? 무엇 때문인가? 지휘자의 의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무성의 한 시작(Attack)과 끝맺음(Release)은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참아야 하는가? 저들이 캐네디안 기성음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글이 너무 비판적인 것이 되어 버려서 수고하신 단원들에게 송구스럽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되려면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을 참아야 한다고 들었다. 같은 피와 얼을 나눈 한국인으로서, 또 이곳 캐나디안들과 어깨를 겨루며 음악을 공부하는 음악도로서 한국인의 음악단체와 그들의 활동이 자랑스럽고아껴지는 마음에서 감히 고언을 했다.

한인합창단의 발전에 요긴한 쓴약이 되었으면 한다.

존경하는 박재훈 박사와 합창단의 끝없는 발전과 알찬 결실을 빈다.

(필자 : 합창지휘·작곡전공)

▲노화병에 걸린 아이들
자기나이보다 10배나늙어보이게하는 노화병에 걸린 미키·헤이즈(8세)군과 프랜지·게린저(8세)군이 2일 디즈니랜드를방문, 피노키오, 미키마우스와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고있는 게린저군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헤이즈군을 만나기위해-미국을 방문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수 상〉

낙 서 (落書)

홍 기 만

교리강습교실은 가톨릭학교 3층에 위치하고 있다. 3층까지의 층계가 왜 이렇게 높을까. 나는 급히 층계를 오른다. 또 늦었으니, 역시 뛰어오른다. 하필이면 이 다급하고 초조한 순간에"알퐁스·도데"의〈마지막 수업〉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나처럼 지각을한"프란츠" 꼬마녀석은"아벨"선생께꾸지람을 받을까봐 가슴을두근거리며 교실문을 살짝이 열었었지.

뜻밖에 아벨선생은 노하지않고, 프란츠를 부드러이 맞아주었고, 항상 떠들썩하던 학우들도 이상하리만치 숙연히 책상앞에 앉아있었다. 이제 막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배우는것은 이것으로 마지막이었다.

그건 "프로시아"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을때의 이야기였지. 그때부터 프랑스인들은 누구나 독일어를 배워야 했었으니까.

나는 교리강습이 진행되고있는 교실안에 들어선다. 교실은 수강생들로 꽉차있다. 책상이 모자라 10여명은 서서 강의를 듣고있다. 나는 그틈을 비집고 창가에가서 벽에 기대선다.

지각생은 전혀 무관심한듯 선생의 강의는 계속된다.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수난의 장면이 커다란 화폭에 담긴듯 펼쳐져 나가고 있다.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돌발길을 한발자국 한발자국 옮김에따라 선생의 음성은높아지고 있었다.」

나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다. 회색하늘이낮게 드리우고 있다. 전차가 한가이도 움직이는 Queen St.의 가로수에는 이제 더 나염질 잎새가 없었다.

그랬었지. 그리스도는 12월의 어느추운겨울밤 마굿간의 지푸라기 위에서 태어났지. 그건 벌써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 인류가 빚는 고통과 고뇌의 비극을 압축한 탄생이었지.

L선생의 음성이 열기를 띄우기 시작한다. 「라틴」어(語)의 짧막한 단어가뒤섞일 때면 강의는 벌써 절정에 이르고 있다. "베로니까"여인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흐르는 땀과 피와 먼지를 닦아준다. 물 한모금을 그리스도의 입을 추겨준다.

나는 다시 시선을 창 밖으로 옮긴다. 멀리 바라뵈는 붉은 벽돌건물에 촘촘히 박혀있는 유리창이 패나 답답하게 느껴진다.

베로니까 여인은 위대한 여인이야. 정말 용기있는 여인이었어. 그러한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불현듯 내 앞에는 K시의 학살사건이 확대되어다가오고 있었다. 난 그런용기가 있었을까? 내가 거기 있었다면…, 줄줄이 묶인 채 군화에 채이고, 총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으며 끌려가는 어린 학생들에게물 한모금을 먹여줄 수 있었을까. 얼룩진 얼굴을 닦아줄 용기가 있었을까. 베로니까 여인은 정말 용기있는 위대한 여인이야.

어느새 80분의 강의는끝을 맺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가슴속에 따스하고 맑은 빛으로 깊이 깊이 새겨지며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이브에 성세를 받지 나는. 그러고 보면 이게 마지막 교리강습이 되는거군. 층계를 뛰어오르며 〈마지막 수업〉이 떠오른 건 그래서였을까. L선생의 모습에서 나는아벨선생의 모습을 보고, 아벨선생의 진실 을 읽는건 내가 어릴때 마지막 수업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 짤막한 글은숫제 외워버렸었으니까.

참, 아벨선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었지.

"하나의 국민이 노예로 전락되더라도 자기나라 말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자신이 갇힌 감옥의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는 거와 같아." 종이 울리고 마지막 수업이 끝났지. 아벨선생은 목이 메어 있었어. "여러분 나는 나는… 나는…" 그는 끝내 말을 맺지 못했지. 분필 한토막을 집어들고 이렇게 썼어. 크게 크게 말이야. "프랑스 만세".

◇ ◇

단풍이 캐나다의 가을을 붉게 불태울 무렵, 나는 교리강습에 이름을 등록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를 가끔 돌아보았고, 어떤 때는 삶의 의의(意義)를 생각하며 불교철학의 허무함도 배워보고, 중국의 고대서적 도 읽어보고, 6.25후의 암담했던 젊은 시절에는 실존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민의 순간부터 내 주변을 멀리 떠나버렸다. 나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고, 서투른 솜씨로 기계를 다루는 내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였다. 이민생활의 시초는 극한상황(極限狀況)과극한의식(極限意識)을 함께 체험하는 잔인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생활속에서도 신앙에의 계기가 없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제풀에 죽어버리곤 했던 것은 다만 나의 의지의 결여에서만은 아니었다. 그리 깊은 내용이 없는 이야기가 파도처럼 귓전을 연신 때리고 나면 그저 나는 권태를 느꼈고, 다음 일요일에는 늦잠을 자 버리곤 했었다.

◇ ◇

막 흩날리기 시작한 낙엽 몇 잎을 밟으며 첫교리강습에 나간 9월의 어느날 나는 L선생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이 퇴색해 버린 나의 마음속에 한줄기 「환희」가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었다. 무엇인가 소리높여 읊고 싶었다. 무엇인가 자꾸만 쓰고 싶었다. 나는 단숨에 〈가을의 落書〉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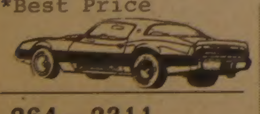
〈落書〉는 이렇게 시작되었었지. 모두 다섯편. 이젠 낙서에의 집착에서 해탈을 할 시기야. 이민이후론 처음 쓴 글이지. 그래서일까 애착이 가는 건. 하지만이제 그만 헤어져야지.

세찬 바람이 캐나다의겨울을 마구 흔들고 있을 때 나는 마지막 落書를 쓰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성세를 받는다는 경건한 마음을 안은채—.

—끝—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 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내고향 통닭집

내가 등진 저바다 건너
고국하늘 밑에 살고있는 부모형제를 그리는
향수…, 벗과 함께 쌓이고 쌓인 그 모두를
통털어 여기에 자리잡고 당신의 마음을 아는듯 기다리고 있는 전기구이
닭으로…, 아니면 고향의 내음이 담뿍풍기는 곰탕, 우동, 빈대떡, 만두 등등 조국의 얼로
집씹으며 마음 답답함을 달래보는 기회를 종종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537—0432
주소 : 658½ BLOOR ST.W
(블루어×매닝)

정기총회 소집공고

정관에 의거하여 본회 제6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키로 1981년 7월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이에 소집공고 하오니 회원제위 께서는 부디참석하셔서 많은 고견과 친화가 이룩되시기를 간망 하나이다.

— 아 래 —

일시 : 1982년1월2일 오후1시
장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안건 : 1. 회무보고
2. 감사보고
3. 81년도 세입, 세출에 관한건
4. 82년도 세, 출입 예산심의건
5. 임원개선건
6. 기타사항

※특별히 유의하실 사항은 12월31일 4시까지 회비(81년도분)를 납부한 자라야 회원권이 발부됨.

한국노년회장 정 인 기

초대합니다

다년간 본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던 안상엽 목사님의 이인 송별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석별의 정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1981년12월27일(일)오후2시30분(주일예배후)
장소 : 선교교회 친교실
1 Greenland Rd.
Don Mills, Ont.
전화 : 444—8002

선교교회 제직
회원 일동

波軍발포、流血衝突확대

바르샤바放送발표 死傷者 4백餘명

◇장갑차 布陣 폴란드당국의 집회금지령에도불구, 바르샤바대학의 학생및 교수단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직후 병력수송 장갑차 1대가 바르샤바대학주변 승리의 광장에 포진하고 있다。이사진은美NBC방송이 입수,방영한것들。【뉴욕17日AP訟=聯】

共黨·救國軍事委 內紛속에 勞動者、도끼들고 抵抗 완강

【바르샤바·런던·빈17日AP AFP=聯】정규군과 보안군으로 구성된 폴란드계엄군과 정부의 계엄선포에 항의、대대적인저항운동을 벌이고있는 노동자사이에 17일 주요공업지역및 광산지역을 포함한 곳곳에서 사망자를내는 유혈충돌이 발생했다。바르샤바방송은 이같은 충돌로 모두 약4백명의 사상자를 냈다면서 실레시아의 부예크탄광지대에서도 계엄군의 발포로 7명이죽고 2백여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폴란드에서 이날 브뤼셀에 도착한 한 벨기에여행자는 브라틀로브 열차제조공장에서 계엄군과 노동자들간에 발생한 유혈충돌로 최소한 3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바르샤바방송은 계엄선포 4일째인 이날 처음으로 유혈충돌사태를 보도,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계엄군과 이에 대항한 노동자들간에 그다니스크와 카토비체등 수개지역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탄광노동자들이 당국의 질서유지 호소에 복종하지 않았기때문에 보안군을 광산에 투입했으며 탄광노동자들은 돌과 철봉、도끼및 곡괭이등으로 보안군에대항했다고 말했다。방송은 이같은 충돌로 보안군측에서도 41명이 부상했으며 이들중 12명은 중상이라고 덧붙였다。

【빈18日UPI聯=聯】군대에의해 광부7명이 사살됐음에도불구、바르샤바의 폴란드인들은 17일 계엄에 반대、군중들을 곤봉과 최루탄으로계속진압하는 경찰에 맞서『게슈타포』『솔리다르노스크、레호·바웬사』를 외치면서데모를 벌였다。

레이건、自由化운동支持 美國人에 撤收촉구

바르샤바의 한시민은 박살난 안경을 손에들고 부어오른얼굴에 한손을 얹고 있을때 폭동진압 경찰이 후려쳤다면서『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실제로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말했다。

【워싱턴17日=聯】레이건美대통령은 17일 폴란드의 자유노조를 중심으로한 자유화운동을 지지하면서 폴란드당국의 노조운동에대한 탄압은 헬싱키 인권협정의 완전한위반이라고 말했다。

【워싱턴18日AP UPI聯=聯】레이건미국정부는 18일 폴란드에 위기의책임은 부분적으로 소련에있다고 말하고 폴란드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인들은 폴란드를 철수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했다。

【프라하18日UPI聯=聯】폴란드공산당내서 심각한 내분이 벌어지고있다는 보고가 폴란드로부터 체코에 도달하고있다。

폴란드공산당은 지난13일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족한 구국군사평의회에 의해 완전장악돼, 당의존재는 공식성명에서조차 공공연하게 무시를 당하고있다。

波軍군복 蘇에空輸 僞裝兵力투입위해

【코펜하겐17日AFP=聯】약10만벌의 폴란드군제복이 소련에 보내져 제2차대전후 소련에 합병된 폴란드語 사용지구의 소련인들이 이군복을 입고 폴란드군 행세를 할수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덴마크의 노조연맹기관지「로」가 17일 보도했다。

拉北 제1공영號 仁川귀환

5개월만에 어제 船員21명과 함께

【仁川=鄭崇鎬기자】조업중 북괴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던 仁川수협소속 제1공영호(48t·선장 孫舜翼·49)가 납북1백92일만인 18일하오 늦게 仁川연안부두로 되돌아왔다。제1공영호는 지난 6월11일하오 1시께 서해 巡威島남쪽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선원21명을 태우고 고기잡이를 하다 시계불량으로 항로착오를 일으킨채 항해하다 납북됐었다。

수산청에 의하면 제1공영호는 仁川항으로 일시 귀향하려다 매우나쁜시계와 해류에 의해 위치측정을 잘못해 항로를 잃고 북방한계선으로 접근했으나 월선하지는 않았었다는것。

제1공영호선원들은 이날하오5시께 팔미도와 仁川외항에서 소독약 살포와주사등 검역을마치고 해경소속 제263함의 호위를받으면서 연안부두 제4잔교로입항했다。

그동안 북괴의만행에 치를떨며 생사를몰라 애를태워온 가족들은 이날 하루종일 연안부두를 서성이면서 선원들을 기다렸고 멀리 제1공영호가보이자 조금이라도 일찍 얼굴을보려는듯 발돋움했으며 선원들이 초췌한모습으로 육지를밟자 그간의 안부를소리쳐 주고받기도했다。

제1공영호 선원명단은 다음과 같다。▲선장 孫舜翼(49)▲기관장 이형복(27)▲선원 변영복(27)▲〃윤철호(20)▲〃이현식(24)▲〃남국태(20)▲〃김종헌(20)▲〃이은주(22)▲〃김용선(22)▲〃이상국(20)▲〃김상근(23)▲〃김영철(33)▲〃이강규(20)▲〃이무빈(28)▲〃박현중(24)▲〃박석천(32)▲〃최양형(22)▲〃최석근(42)▲〃이남석(42)▲〃도행봉(43)▲〃박종규(29)

中部공군基地 위문 西部 해군部隊등도

全대통령、將兵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18일상·하오에 걸쳐 中部지역○○공군기지와 西部지역 해군○○부대에 들러 부대지휘관으로부터 각각 현황보고를 받은뒤 장병들을 위로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공군기지에서 비상출동훈련을 참관한뒤 이어 하오에는 귀로에 仁川시청에 들러 金璨會시장으로부터 市政현황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83년 仁川開港 1백주년기념행사를 낭비와 형식이없고 모든시민이 화합할수있는 기념식이 되도록하라』고 말하고『도시계획은 최소 몇십년을 내다볼수있는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지역유지 50여명과 茶菓를 나누며 환담했다。

國會리셉션 참석

全斗煥 대통령은 18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汝矣島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108회정기국회 閉會리셉션에 참석,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光州사태 관련자등 聖誕전후 減刑조치

政府 소식통

정부는 年末을 기해 光州사태關聯者등에 대한 減刑조치를 취할것으로 알려졌다。

18일 政界의 한소식통은『정부는 聖誕節을 전후하여 光州사태 관련자등에 대한減刑조치를 취하기위해 여러가지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중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년들어 ▲金大中사건관련자11명減刑(1월23일)▲대통령취임 大赦免(3월2일)▲光州사태관련자 83명特赦(4월3일)▲釋誕節特赦(5월11일)▲8·15特赦등 5차례에 걸쳐 특별赦免및減刑조치를 한바있다。

美, 한국에 호크미사일 28基 販賣

【워싱턴17日=聯】美행정부는 한국에 28基의 개량형 호크미사일을 판매할계획이며 17일 이같은 계획을 의회에 통고했다고 미국방성이 17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한국에 판매될 호크미사일은 부품과 훈련비용을 포함, 8천2백만달러라고 밝혔다。국방성발표는 현재 북괴가 공군기수에 있어 한국에 대해 2대1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최신형 호크미사일판매가 한국의 공군력 향상과 對북괴군사력 균형유지에 기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社告

22회 한국出版文化賞결정

著作賞
李盛雨著 韓國食經大典
許興植著 高麗科擧制度史연구

한해의 출판문화를 총결산하는 금년도 한국出版文化賞의 수상도서가 결정됐읍니다。

한국일보社가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향상과 발전을위해 제정한 제22회 한국出版文化賞은 마감결과 총 88개출판사로 부터 2백11종, 6백77권의 도서가 접수돼『금년도의 良書』를 겨냥, 그 어느해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펼쳤읍니다。

심사결과 이가운데서 著作賞(상패와상금 각50만원)을 수상하게될 영광의 도서로서는 李盛雨박사(53·漢陽大교수·식품영양학)의『韓國食經大典』、許興植교수(38·慶北大·史學)의『高麗科擧制度史研究』가 선정됐읍니다。또한 製作賞(상패)은『한국의 전래동화집』全20권을 내놓은 국민서관등 11개사에 돌아갔읍니다。시상식은 내년 1월중순께 가질 예정입니다。

賞金50만원·賞牌 來1월 中旬 施賞

製作賞은 11個社

◇著作賞受賞圖書
▲李盛雨著「韓國食經大典」(鄕文社)
▲許興植著「高麗科擧制度史研究」(一潮閣)

◇製作賞受賞圖書
▲국민서관=한국의 전래동화 全20권 ▲훈민사=빛을남긴 사람들 全12권 ▲삼성당=학생대백과사전 全16권 ▲高大민족문화연구소=韓國現代文化史大系 全5권 ▲知識産業社=謙齋名品帖 全2권 ▲圓光大출판국=補閑集(柳在泳譯註) ▲서울大출판부=傳唱十二歌詞(張師勛著)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학생과학대사전 ▲峨山사회복지사업재단=障碍者福祉便覽시리즈 全3권 ▲陶山文化社=韓國繪畫全3권(崔淳雨編) ▲계몽사=컬러판세계의문학全24권

◇李盛雨씨

◇許興植씨

한국일보社

108회 定期國會 어제 폐회

豫算案등 143議案처리、52건 계류

◇11代 첫定期國會가 끝났다。제5공화국出帆과 함께 새議政像 정립이라는 大命을안고 본회의에서、常任委에서、그리고 豫決委에서 眞論空論과 함께 나름대로의「民意의 소리」를 외치고 의사당을 떠나는 選良들의 표정은 겨울방학을 맞는 學童들처럼 홀가분하다。【崔東完기자찍음】

제108회 정기국회가 18일상오 본회의에서 18개案件을 처리한후 閉會했다。

11代국회의 첫 정기국회인 이번국회는 지난 9월21일開會되어 9조5천7백81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법률안 1백1건、同意案 19건、決議案 11건、중요동의 8건、建議案 3건、規則案 1건등 총 1백43건의 議案을 심의、처리했다。★해설2면

이번국회에서는 의원發議 51건、정부제출 96건등 1백47건의 법률안을 비롯、모두 1백95건의 각종 議案이 제출되어 이중 법률안 49건과 同意·建議·決議案 각1건씩 모두 52건이 未處理、繫留되었다。

이번국회에서 처리된 중요안건은 새해예산안외에 ▲공직자윤리법안 ▲교육세법안 ▲제24회國家保衛에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8·3조치폐지안 등을 들수있으며 民韓黨이낸 ▲국회법개정안 ▲언론기본법개정안 ▲정치활동 被규제자해제건의안등 政治議案들은 대부분 제류됐다。

한편 女大生피살사건、低質炭사건과 관련、特別調査委구성을위한 國政調査權 발동안이 야당에 의해 제출됐으나 모두 폐기된채 低質炭사건만 商工委에서 조사단이 구성됐었다。

丁來赫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정기국회를 마치는 인사말』을 통해『각종 안건을 다루는과정에서 의원들이 개인과 소속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는등 충실한논의를거쳐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대화를통한 새國會像 정립에 內實을 거두었다』고 말하고『특히 공청회제도를 활용、국민들로부터 입법활동에대한 관심을높이고 국민의여론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기업 海外자원 개발 信用보증 대상

국무회의 改正의결

국무회의는 18일 信用保證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의결, 기업이 해외에서 광업및 농림·수산자원을 개발키위해 투자하는 海外資源개발사업을 信用보증대상업종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국토개발공사법 시행령을고쳐 이공사가 買收할수있는 토지의 下限線을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법의 규정에의한 垈地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의 토지로하고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6백평방m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이공사로부터 買收키로 한 경우는 공사가 토지규모에 관계없이 매입할수 있도록 했다。

社會漫評

자꾸만 느는군…

地平線

집에 전기시계가 하나 있다。아쉬워서 산 것이 아니라、가스레인지에 붙어 있는 것이어서、묶어 들어온 것이나 다름 없다。그런데 이 計器는「時計」라기 보다는「停電計」라는 구실이 더 크다。며칠만에 몇10분씩 늦어지는 時差로、그사이 정전된 시간의 합계를 알수가 있는 것이다。덕분에 정전이 얼마나 잦은지도 짐작하고 지낸다。

▼며칠에 한번 이 시계를 다시 맞출때면 언젠가 시골 발전소에서 본 표어가 생각난다。「良質의 전기를 공급하자」。「良質의 전기」란 전압이 고르고、정전이 없는 전기를 뜻한다는 설명이었다。그말투를 빌면 지금 우리는「質나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質나쁜 전기」는 산업생산에 지장을 주고、기기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그것은 자칫 死傷까지 부르기도 한다。

▼게다가、이「質나쁜 전기」의 값은 어쩌다 그리 비싸졌는지 알수가 없다。이달들어 오른 주택용요금을 기준하면、우리나라가 1kw時에 78원34전인데 자유중국은 64원38전、홍콩 68원42전、타일랜드 59원27전이다。[illegible]

▼사실 우리나라 전기사정은 量만아니라 質과 값도 따져 볼 때가 된것 같다。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발전용량은 36만kw에서 9백83만kw로 27배나 늘었다。이만한 電化率은 99%에 이르고、웬만한 집 부엌에는 家電製品이 들어앉고 있다。이렇게 되면、전기는 우리 살림에서「알라딘의 魔燈」에 비길만한 巨人이나 다름없다。그巨人의 봉사가 요긴할수록、그가 온순하여 부리기 편하기를 바라는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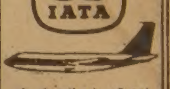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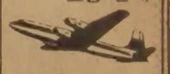
▼그래서 韓國電力이 公社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은 더욱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어제(18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韓國電力은 지금의 자본금 1조원을 2조원으로 늘려 새해에 새모습을 드러낸다。그러나 소비자로서의 관심은 그 巨人의 규모가 아니라、앞으로 이巨人이 얼마나 質좋고 값싼전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에 쏠린다。현대산업·현대생활에서 차지하는 전기의 요긴한 구실을 생각하면 그 관심은 날카로울수 밖에 없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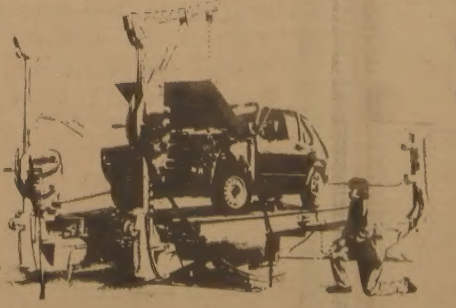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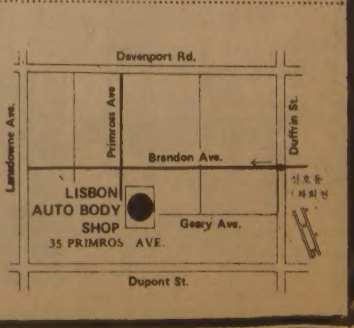
개업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능숙한 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영두, 이건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勞組, 비폭력抵抗 전국消燈
온갖루머 정신못차릴 정도
波정부 外國人 본국送還추진

檢擧선풍에 항의

○…폴란드자유노조는 모든 폴란드국민들에게 군사통치자들의 대량검거에대한 비폭력저항의 표시로 17일 밤을 기해 전국적인 소등에 들어갈것을 요구한것으로 美국무성에 입수된 정보들이 전했다.

美국무성 폴란드문제실무대책반의 한 대변인은 바르샤바시를 비롯, 폴란드의 여러 도시에서 17일하오 7시(한국시간 18일상오3시)를 기해 3시간동안 소등을 실시하라는 자유노조측의 요청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성실무반은 또 체코주둔 소련군과기갑부대들이 폴란드 남부국경지대로 접근중이라는 보도들을 확인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폴란드에서 서방에도착한 여행자들은 자유노조측이 폴란드국민들에게 70년그다니스크동지의 폭동 11주년을 기념, 흑색완장을 두를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동자30명 死亡說

○…최근 폴란드를 방문하고 17일 브뤼셀로 귀국한 한 벨기에人은 브로클라브의 한 객차제조공장에서 노동자들과 폴란드軍간의 충돌광경을 목격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로 노동자30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AP통신 브뤼셀지국에 전화를 걸어 지난 14일밤 5대의 폴란드軍탱크가 브로클라브의 파파바그객차제조공장으로 진입하려했으나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기위해 땅바닥에 무더기로 드러누웠읍니다. 노동자들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할수는없지만 하여튼 많은 숫자였읍니다.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하는동안 공장주위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졌읍니다. 약10~15분후 3대의 헬리콥터가 공장안에 내려왔으며 잠시후 2대가 더 내려 앉았읍니다. 곧바로 공장안에서 자동소총성이 울렸읍니다 그때가 하오3시쯤이었지요』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 그다음날(15일) 파바크공장에서 일하고있는 아내로부터 공장관리인의 아들을 포함, 3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3일밤이었읍니다. 내 아내는 빵집앞에서 꼬박 5시간을 기다렸읍니다. 아내는 끝내 빵한조각 못가진채 울면서 돌아왔읍니다. 암시장에서는 달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살수있읍니다. 환율은 1달러에 7백 즐로티꼴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군대의 명령을 받고 있으며 각공장에서는 군복이 지급되고 있읍니다』라고 덧붙였다.

특별전세기 동원

○…폴란드계엄당국은 17일 8대의 특별전세기를 동원, 국경봉쇄이후 폴란드內에 발이 묶여있는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내보내는 한편 재외폴란드人들을 귀국시킬것이라고 폴란드TV가 보도했다.

런던에서 청취된 폴란드TV는 지난13일 계엄령선포에 따라 폴란드항공노선이 폐쇄된이래 처음으로 17일 폴란드국영LOT항공사소속의 특별전세기8대가 바르샤바와 런던, 로마, 이스탐불, 스톡홀름, 부다페스트, 뉴욕, 모스크바및 파리간을 운항, 폴란드內외국인들을 내보내는한편 외국에 흩어져있는 폴란드人들을 귀국시킬것이라고 발표했다.

체코亡命者들 聲援

○…빈에망명중인체코77인권헌장운동회원들은 17일폴란드의 그다니스크노조본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부분 빈에 거주하고있는 이들 77헌장서명자들은 이날 아침 오스트리아통신(APA)에 실린 메시지를통해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기본인권을 보호함에있어 무조건 폴란드노조의 편』이라면서 지난수개월간 폴란드 노조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방안을 제시해왔다고 찬양하고 폴란드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권력층은 필사적으로 대화를 종식시키고 국민의 의지보다는 전체주의의 보호를 더 앞세웠다고 비난했다.

勞動者들 탱크進入 肉彈저지
客車제조工場서 戒嚴軍과 대항

◇"波독립없이 正義도없다" 그다니스크의 레닌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지난14일조선소정문에 폴란드의 독립없이는 유럽의정의도없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바리케이드를치고있다. 이사진은 그다니스크를방문하고 17일돌아온 西獨 브레멘市의회의 볼프강·쿨라트의원이 찍은것이다. 【그다니스크17日UPI=聯】

"罷業계속땐 모든希望 없어진다"
대부분工場 정상稼動 勞動者들 秩序잘지켜
國營방송이밝힌 폴란드 國內상황
그다니스크 造船所등 소요鎭壓돼
거리平穩 되찾고 食糧배급늘어나

【빈18日UPI=聯】 폴란드 국영방송국은 18일, 『대부분의 공장들이 다시 정상작업을 하고 있으며 폴란드 진압군이 광부7명을 사살함으로써 도발하면 데외엔이 분쇄되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카토비체에서 파업광부7명이 군대에의해 살해되고 그다니스크의 시가전으로 3백24명이 부상한후 이틀이 지난 이날 폴란드국내상황을 설명, 노동자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에서 청취된 이 방송은 또 신중을 호소하는 공산당제1서기 야루젤스키의 발언을 반복해 방송했다.

이날 라디오방송은 『16일의 비극적인 사태들은 우리의 모든 희망에 고통스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사태는 도발이 폴란드에서 아무런 전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실증했다고 우리의 희망을 완전히 말살하지는 못했다. 대결의 길은 아무곳도 갈곳이 없다』고 말했다.

라디오방송은 약식신문을 낭고왔는 수명의 체포된 자유노조지도자 명단을 발표했다. 방송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지역별 사정은 다음과 같다.

▲그다니스크=교통이 정상으로 되돌아갔으며 식량공급도 나아졌다. 그러나 레닌조선소가 정상을 회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발표가 없다.

▲바르샤바=공장들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자유노조는 배치병력도 줄었다. 그다니스크 식량폭동 11주년을 기념, 17일 벌이려던 데모를 취소했다.

▲츠체친=바르샤바방송은 폭동을 기념하는 공식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상점들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있으며 물건들의 재고도 충분하다.

▲로즈=군대가 파업을 진압한 후 정상이 회복됐다고 방송이 보도했다.

▲스키에르니에비체=식품공장과 야금공장의 조업이 잘되고 있으며 소요의 후유증이 제거됐다.

▲비드고스츠=자유노조원인 한 공산당관리가 스트라이크선동혐의로 체포됐다.

▲루블린=한 자유노조간행물의 편집장인 비에스라프·리스가 스비드니크의 한 운송공장에서 파업을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 대부분의 공장들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국민90%가 信者…危機때마다 중재역
恶化一路 波사태 解決 가톨릭에 한가닥 期待
勞組·共産黨 모두 혼란에 빠져 軍政 상대할 유일한 勢力으로

【본18日AP=聯】 폴란드자유노조와공산당간의대결로빚어진 現폴란드의 혼란상태에서 사회평온을 되찾게할수있는 세력은 오직 가톨릭교회뿐인것 같다. 현위기에서 교회가 취해야할역할은 폴란드태생인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개인적관심을 표명하고있어 더욱 중요시되고있다.

교황의 79년 폴란드방문은 자유노조운동을 불러일으킨 폴란드 민족주의에 하나의起爆역할을했다고 볼수있다. 야루젤스키수상이 계엄을 발표하자 처음에 글렘프대주교를 비롯한 가톨릭주교단은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생명을 헛되이 내던지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평온을 호소했다. 그러나 파업해산에 군부가강경책을 쓰는 기미가 보이자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바티칸당국은 17일폴란드주교단에 보내는 코뮈니케를 발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국가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라면서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서방관측통들은 글렘프대주교의 성명발표로 가톨릭교회가 가장유력한 중재자가될것으로 믿고있다.

폴란드 가톨릭교회는 3천6백만 국민중90%를 신도로 확보하고있다. 공산당정부의 관영언론 매체들은 최근 가톨릭교회가지난16개월동안의 사회격동기에서 중재역할을 해왔다고칭찬했다. 레흐·바웬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故비신스키 대주교및 글렘프 現대주교와자유노조와 밀접한관계를 유지해왔다. 자유노조 주 대회를 가진바있다.

계엄이 선포되자 폴란드사회의 가장 중요한 3대세력중 가톨릭을 제외한 두세력(공산당과 자유노조)은지금 혼란상태에 빠진것으로 보인다. 2백50만당원을 가진 폴란드공산당은 숙청과 사임과 경제실책에의한 不信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1천만 회원을 거느린자유노조역시 대부분의 노조지도자와 행동주의자가 체포되어 그세력이 약화되었다.

이에반해 비록 상당수의 명한 신도들이 최근 투옥되긴했지만 가톨릭교회조직은 손상되지않고 남아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폴란드국민의 화신이 되어왔다. 수세기에걸쳐 폴란드가 러시아인및 오스트리아인, 프러시아인에 분할당했을때 로마가톨릭교회는 폴란드국이 1918년11월 유럽지도상에 복원되기까지 유지해왔다. 교회는 1940년대말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한후에도 계속 중재역할을 수행했다.

스탈린주의자들이 집권하는동안 공산정권은 교회의힘을 분쇄하기위해 교회재산을 징발하고 성직자를구속하고 비신스키추기경은 가택연금됐다. 그러나 고물카공산당 제1서기는 1956년 억압정책을 완화, 교회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활동을 허용했다.

비신스키추기경은 1968년의 학생데모, 1970년 그다니스크시및 1976년 라돔시의 노동자봉기, 그리고 1980년의 전국파업때 국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물론 성직자가 군대의 자유노조탄압으로 야기된 깊은 상처를 치유할수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지난11월 바웬사, 글렘프, 야루젤스키 3者의 역사적 회담을 주선했다. 이 회담은 당시 국민和解를 이룩할수있는 중요한 계기로 꼽혔다. 그런 기대는 계엄선포로 물거품이 됐다. 한편 자유노조안에서는 바웬사가 너무 교회측 설득을 따른다는 비판이 있었다.

업서버들은 글렘프대주교가 단호하게 노조편을 들면 교회도 군부의 박해를 받을 여지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들 보고있다. 글렘프대주교는 자기가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에선으로써 南美처럼 정부+지성세력對 교회+혁명세력으로 양극화되는 사태가 오지않도록 신경을쓰고있다.

◇크리스머스 선물받는 波 어린이들 폴란드 서남쪽 레즈노의 국민학교 아동들이 14일 한西獨적십자사 트럭으로부터 식품상자를 크리스머스 선물로 받고있다. 【레즈노(폴란드) 18日UPI=聯】

東歐지도자 蘇도착
브75회생일축하…波사태 論議할듯

【모스크바17日로이터=聯】 동구지도자들은 17일 이틀앞으로 다가온 소련공산당 제1서기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75회생일을 축하하기위해 모스크바에 속속 도착하기 시작함으로써 모스크바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회원국지도자들의 회동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나 폴란드사태에 관한 정상회담은 개최될것같지 않다.

모스크바의 믿을만한 소식통들은 동구지도자들이 18일 브레즈네프에게 동구각국의 훈장을 수여할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들 바르샤바조약기구 지도자들이 폴란드사태에 관한 정상회담을 개최할것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으나 동구소식통들은 소련이 동구지도자들에게 對폴란드식량원조증대를 요청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란高原 합병은 無效"
"2週內폐기않으면 後續조치"
美찬표속 安保理만장일치 決議

【유엔본부18日AP=聯】 유엔안보리는 17일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을 「무효」로 선언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 결의안을 15-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및 시리아대표단이 이스라엘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직접적인 위협을 피한 온건한 어구의 협안을 마련한후 투표에 붙여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찰즈·M·리헨슈타인 유엔주재 미부대사는 미국이 이 결의안에 찬표를 던짐으로써 이스라엘의회가 취한 조처에 대해 미국의 깊은 유감과 반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결의안은 이스라엘이 만약 2주내로 의회의 골란고원합병법안을 폐기하라는 유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른 적절한 對이스라엘조처를 검토하기위해 다시 회의를 열것이라고 밝혔다.

美육군준장 自宅서 被拉
南유럽 駐屯軍 참모차장

【워싱턴17日AP=聯】 제임즈·L·도지어 미육군준장(50)이 17일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는 자택에서 납치됐다고 美국방성이 발표했다.

美국방성 대변인은 도지어장군이 이날 하오5시30분(현지시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강제납치 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도지어장군의 부상여부및 납치범들의신상은 현재로서 전혀 확인할수 없다고 말했다.

도지어장군은 폴로리다州 아케디어출신으로 현재 남부유럽주둔 통합지상군 군수행정담당 참모차장직을 맡고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부내 고위급 미군장교로 지난 6월 현직에 임명됐었다.

太平洋해군력 增強
와인버거 美國防

【東京17日=聯】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16일 한정조계획이 예정대로 진척되면 태평양지역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력을 증강시킬 계획이며 극동유사시에 대비한 즉각 대응태세를 강화하기위해 미·일군사협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의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겨냥, 방위비증액을 거듭 촉구한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와인버거장관은 또 극동전략과 관련, 소련이 아시아지역에 강력한 이동식 중거리핵미사일 SS20을 배치하고 해·공군력증강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소련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것은 『위험한 오』라고 지적했다.

美·蘇軍縮協商 금년 會議마쳐

【제네바17日UPI=聯】 미국과 소련의 군축협상대표들은 17일 제네바에서 제6차회의를 마치고 다음회의를 내년1월12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대표단측은 이날 제네바주재 소련대표부에서 1시간45분동안 진행된 제6차군축협상을 끝낸뒤 발표한성명에서 크리스마스와 신년휴가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제7차회의는 내년 1월12일 제네바주재美대사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폴·니처美수석대표와 유리·크비친스키 소련협상대표는 수일내로 제네바를 떠나 귀국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메아리
도시를 사람답게

언젠가 프랑스의 드골 大統領이 日本의 「고도성장」을 평하여 이렇게 말한 일이있다―『이제야 下水道부설공사를하니 GNP가올라갈수 밖에』

그렇게 말하는 프랑스는 사실下水道정도야 19세기에 건설해 놓았다. 지금도 파리를찾는 관광객의 관광코스에 이거대한 규모의 下水道가 단단히 한몫을 차지한다. 都市下까지도 「관광」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3世때 센縣知事였던 오스만백작에 의해 대대적인 파리都市開發事業이 전개되어 오늘날의 파리모습을 그때 完成해놓았었다. 凱旋門에서 동남으로 2㎞에 걸쳐 뻗은 폭 1백m의 샹젤리제大路는 물론 도로변의 아담한 건물, 가스燈, 下水道, 센강의 다리등 「아름다운 꽃의 파리」는 바로 그때의 作品이다.

그후 파리에 대해 또한번 都市計劃案이 만들어졌다. 그1백년만인 1968년에 기원 2천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全國의 지방개발안과 함께 파리시 개발안이 공표된것이다. 파리주변에 5개위성도시를 건설하고 남과 서북축을 기축으로 하여 파리가 팽창토록 한 계획이었다. 이계획안의 모토는 「도시를 사람답게!」

도시개발이란 결정하기 어렵고 시행하기는 더구나 어려운다. 그러나 내버려 둔다는 것은 더구나 어려운 일이다. 로마의 세네카가 쏟은 警句―「어렵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것이 아니다. 엄두를 내지 않기때문에 어려운 것이다」라는 말을 바로 都市開發計劃에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서울市당국이나 또는 건설부에서 그동안 많은 서울시개발계획, 혹은 국토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요즘에와서는 86, 88두 올림픽경기에 맞추어 도시를 정비해야 한다고 사뭇 서둘러 이미 발표한 계획들을 다듬는것같다. 최근엔 國土開發硏究院이 도시계획세미나를 열어 「시행착오를 씻고 「새方向전환」을모색한다는 의욕을 보이기도했다.

그러고보면 88년에대비한 도시再整備計劃의 決定版이 있는것 같기도하고 없는것같기도하여 자못 어리둥절해진다. 서울都市계획수립의 연혁을보면 1930년까지 소급하여 1959년을 목표연도로한 「京城」도시계획이 있었다. 그후 計劃다운 計劃이라 할수있는것이 72년에, 91년을 목표로하여 성안된 「서울시계획조정안」이었고 가장최근것으로는 78년에작성된 「2천년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안」(인구9백45만명에 18개부도시건설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올림픽에 대비해서라도 도시, 교통, 보건, 주택, 환경, 교육…등 모든문제가 체계적으로 투시되는 종합적인 「하나의 계획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적은 GNP에 엄두를 내어서라도…

◇30m크기의 초대형 산타클로즈

30m크기의 초대형산타클로즈상이 나폴리의시중심지에 세워져 크리스마스분위기를 더욱고조시키고있다. 【나폴리17日AP=聯】

海外토픽
中共영화 美에첫선
★未開地 내년開封

중공에서 약20년만에 순수 민간에의해 제작된 미개지라는 영화가 내년에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상영된다.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葉劍英의 딸인 링지가 감독한 이 96분짜리 영화는 봉건시대 중국여성의생활과 비극을 묘사한 것인데 줄거리는 개인적인자유가 허용되지않던 봉건시대의 한시골처녀가 애인으로부터 버림을받고 그의 원수의 아들과 결혼했다가 자유와 보다 나은생활을 찾아 마을을 탈출하는 내용이다.

중공여배우 리우·지아오퀸이 여주인공 진·지역을 맡은이 영화는 개인적 자유에관한 논란문제로 중공내에서는 아직 일반에 미공개상태다. 【北京=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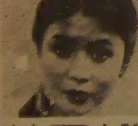
黃金값이 가장비싸
★세東方박사 購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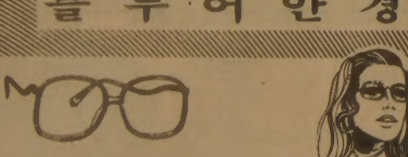
예수탄생당시 그에게 바친 선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마련했던 동방박사세사람이 만약 금년에 똑같은 선물을 다시 살경우 그가운데 가장 값비싼선물은 역시 황금이 될것이다.

지난16일 시세에 따르면 금은 온스당 4백17달러였음에 비해 유향과 몰약은 파운드당 각각 1·75달러와 52~62센트로서 황금값에 비할바도 못되게 싸다. 【뉴욕=AP】

織維類 수출 꾸준한 增加
올目標 10%초과

下半期들어 輸出이 전반적으로 침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纖維類는 꾸준한 증가세를유지, 業種別로는 유일하게 당초목표를초과달성할 전망이다. 18일상공부가 집계한 11월말현재의 섬유류수출실적은 56억6천7백33만달러로 前年同期對比 26·3%의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같은 기간의 전체수출 증가율 21·5%를 크게 앞질렀을뿐아니라 올해 목표 57억5천만달러의 98·6%를 달성했다.

주 간 여 성
인기절찬 판매중!
12월20일자
주간女性

〈탤런트 복혜숙〉
혜숙 소타 鄭美羅양 시집간다네
—21일 은퇴하고 28일 친구 오빠와 約婚
碧眼처녀가 「孤兒사랑」 20년
81년 演藝총결산 「映畵界」편
人氣 배우들의 개런티 明細
스타 誕生 夜話 尹福姬편
中共서 돌아온 「宋家큰어른」
마거리트 公主의 쇼킹 傳記
發明賞탄 「항생제 새合成法」
李美淑과 全永祿의 뜨거운 사이 傳相
50代 外國人 신랑과 40代 畵家 신부의 스위트 홈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블 루 어 안 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 9 : 30AM~7AM
금 · 9 : 30AM~8PM
토 · 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82년을「韓美友好의 해」로

政府、修交百周맞아 紀念사업비 56억策定

국내행사보다 美國內 한국관계行事에 力點두기로

정부는 18일 韓美修交 1백주년이 되는 82년 한해를「韓美友好의해」로 선포, 두 나라간의 紐帶와友好를 더욱 심화하는 한편 이를위해 각종기념사업비로 56억원(정부36억원·민간 20억원)을책정하는 내용의 韓美修交1백주년기념사업계획을 최종확정했다. 정부는 이날「韓美友好의해」선포문을통해『大韓帝國과 美合衆國간에 韓美友好通商條約이 체결된 이후 1세기동안 양국관계는 오늘날의 同盟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특히 한국動亂중 자유민주주의守護를 위해 미국등 우방제국의 한국戰參戰을 계기로 韓美관계는 상호安保이해에 기반을 둔 血盟의 友誼를 공고히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분야에 걸친 실질협력관계로 발전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하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된 韓美修交1백주년기념사업계획은 기념사업의 기본목표를 ▲미국의 對韓이해와 인식의 개선및提高▲미국내親韓세력의육성계기로 활용▲韓美友好와 紐帶관계의 확대심화에두고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全斗煥대통령의 訪美성과를 지속적으로 高揚·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계획은 각종기념사업을 82년 한해에걸쳐 시행하되 友好通商조약이 체결된 5월22일을 전후해 집중실시하며 국내행사보다는 미국내의 한국관계행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각종기념사업은 민간사업과 정부사업으로나누어 실시하되 가급적 民間主導型으로 추진하며 민간사업은 業界헌금등 민간募金(20억원)으로, 정부사업은 82년도 정부예산(36억원)으로 각각 충당토록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4월과 9월 정부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金東輝외무차관)와 민간추진위원회(위원장 金溶植韓赤총재)를 각각 구성, 각행업案·예산작성및 조정작업을 벌여왔다.

확정된 정부및 민간사업내용과 실무·위원은 다음과 같다.

政府事業 (괄호안은 예산·단위 백만원)

◇외무부(489)=▲韓美교류공자 초청및 叙勳▲교민행사지원▲1백주년기념축하리셉션▲韓美연례학술회의개최
◇문공부(438)=▲修交1백주년기념영화제작▲국악연주단 訪美순회공연▲기념사진전▲기념畵報발간▲한국傳承공예및 도자기展
◇문교부(236)=▲修交1백년史편찬발간▲1백주년기념심포지엄및 학술誌발간▲修交1백주년 국제학술대회
◇상공부(1、929)=▲美테네시州녹스빌에서 열리는 세계에너지박람회 참가
◇국방부(499)=▲한국戰참전美軍용사초청▲사관생도訪美순항훈련
◇내무부=▲12개姉妹도시간 행사
◇체신부(10)=▲기념우표및 小型슈트발간▲국내및 美洲순회우표전시회 개최
◇전매청=▲기념담배발매

民間事業

▲기념비건립(한국)▲뉴욕과 보스턴에 한국문화재常設 전시실 설치▲韓美미술작품전시회▲修交1백주년특별사절단파견▲美사우드 캐럴라이나大 성가대초청▲駐韓美軍장병순회위문공연▲기념품제작

◇정부調整實務委員會=金東輝외무차관(위원장) 李興柱(총리실제1행정조정관실) 閔泰亨(경제기획원일반예산심의관) 金奭圭(외무부美洲국장) 金庚哲(〃정보문화국장) 康祐赫(내무부지방행정국장) 韓英奎(국방부인사국장) 李桂芸(문교부체육국제교육국장) 李秀烋(재무부理財국장) 柳得煥(상공부통상진흥국장) 李容權(문공부예술국장) 姜範錫(해외공보관문화부장) 李海旭(체신부우정국장) 李松容(총무처총무국장) 尹永勛(과기처기술협력국장) 李貞男(전매청업무국장)

◇民間推進위원회運營委=金溶植韓赤총재(위원장) 圭澤(국제문화협회회장) 胎甲(한국신문협회회장) 仁相(韓美協會회장) 順(한국무역협회장) 昌永(한국방송공사사장) 周永(대한상공회의소회장) 太完善(전국경제인연합회장) 河大敎(韓美친선협회회장) (국제관광공사사장) 金文宋彰元壽鄭 劉李鄭

「도시로간 處女」 途中下車 사연

안내양·運轉士 불미한關係묘사 禍根

▲방화「도시로간처녀」(金承鈺각본, 金洙容감독)가 버스안내양과 운전기사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퇴폐적인 내용이라는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로 11일 간판을 내렸다. 이로써「도시로간 처녀」는 개봉8일만에 도중하차했다.▼

映畵界 화제

상영중인 영화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상영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번이 방화60년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중앙극장에서 상영되던 이 영화는 시골에서 상경한 처녀가 버스안내양을 하면서 온갖 굴욕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내용을 그렸다.

그러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측이 상영중지를 요구하며 버스안내양들의 생활을 퇴폐적으로 그려 인격을 모독했다고 지적한 대목은▲횡땅, 알몸수색등을 과장하여 묘사함으로써 안내양과 운전기사를 도둑으로 취급하는등 인권을 유린했고▲안내양과 운전기사의 불미한 관계를 그려 이들이 섬모럴이 없는 저질생활을 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묘사했으며▲조장이 안내양들의 사물함을 뒤지는등 노동조합을 어용화한 것처럼 오해케 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안내양들의 생활을 불건전하게 왜곡묘사함으로써 15만교통운수근로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노조측은 제작사인 泰昌흥업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신문지상에 공개사과문을 발표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로…」는 76년 노동청에서 모집한 노동자수기공모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안내양 李順偸양의 수기를 토대로하여 金承鈺씨가 엮어낸 작품. 금년대종상사때는 사회고발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심사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버스안내양들의 생활을 퇴폐적으로 묘사, 인격을 모독했다는 주장에 따라 상영이 중단된 영화「도시로간 처녀」의 선전포스터.

勞動部 현상모집한 手記 映像化 시킨것
2億들여 제작、地方흥행 이미 판권 계약
藝術·사회성마찰、중단은 邦畵史上 처음

제작사인 泰昌은 지난2월부터 6개월간 2억원을 들여 제작했으며 지방흥행사들과 이미 판권을 계약했기때문에 배상문제까지 뒤따르게 됐다.

泰昌측은『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안내양의 권익옹호와 사회고발, 이들의 애환과 애뜻한 사람들 건전한삶을 그리려고 노력했다』며『영화의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제동을 건다는것은 영화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지적, 공개토론에 붙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전체적인 흐름이 계도성을 띤 것일지라도 부분적인 내용중에 이들의생활을 잘못 그려냄으로써 특정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오도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한다. 자동차노조 金鈴子여성부장은『악조건속에서도 혼자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안내양들이대부분인데 유독자극적인 부분만 앞에내세워 전체적인 안내양들의 생활이 그런것으로 보여주는것은 사회적인 인권침해』라며『감수성이 예민하고 덜 성숙된 안내양들에게 자극을줄 염려가 크며 시골의 부모들이 이 영화를 보았을때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영화의「예술성」과「사회성」이 부딪쳐 사회문제를 일으킨 적은 몇번 있어왔다. 특정직업인을 희화적으로, 또는 풍자적으로 묘사할때 특정단체의 항의로 일부 장면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어 상영된 적도 여러번 있었다.

제작사측은『이런 비판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어 자극적인 장면은 피했다』며『전체적인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가운데 사회고발의식을 부각시켰다』고 밝히고『일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제작과정에서 대본의 많은 부분을 완화시켰고 제작후에도 20여분의 필름을 삭제했다는 것. 따라서 이영화가 검열에 통과되고 공연허가를 받았는데도 상영중단이라는 사태까지 이른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상영중단을 계기로 영화의「소재의 제약」문제와 관련, 영화제작이 크게 위축될것을 영화인들은 우려한다. 영화평론가 邊仁植씨는『예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비리를 꼬집고파헤쳐서 작가의식을 강하게 표현해야 하는 반면, 너무 흥행을 의식한나머지 눈요기나 특정직업인의 관계를 야릇한 시선으로 보도록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부조리를 지나치게 파헤쳐 비뚤어진 관념을 심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도시로 간 처녀」는결국 창고속으로 갔지만「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냐는 문제는 한국영화의 과제로 남긴 셈이다. 【金蘭彦기자】

검은오리號의 航路에서

나의 이력서 〈韓宇·元一漢〉 元一漢 ⑳

꿈의 보트「검은오리」號의 극적인 첫 항해에 승선한 인원은 모두 6명이었다. 물론 아버지가 스스로 선장이 되고 나와 쌍둥이 동생 요한과 제한 등 3형제가 선원이될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모두가 능력이 의심스러운 선원들이었다. 꿈이 실현된 처녀항해때 만11세의 나와 나보다도 2살아래인 쌍둥이 동생들은 말그대로 승선자격만이 있었을뿐 항해엔 별다른 도움을 주지못했다.

우리4부자 외에 延禧전문학교교수인 J·E·피셔박사와 H·A·로드박사의 아들인 플·로드가 첫항해에 참가했다.

이때 6명의 멤버가 어떤경로로 구성됐는지는 확실치않으나 플·로드는 나보다 나이가 3~4세 많아 우리형제에 비해 상당한 역할을 한 것같다.

피셔박사는 아버지와 똑같이 교육학을 전공,「한국의 민주주의와 선교교육」(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이란 저서를 출판했고 새교육운동과 민주주의 교육이론을 미국과 거의 같은시기에 延禧전문학교에 소개한 분이다.

피셔박사의 이 저서는 아버지의 저서「한국의 근대교육」과 함께 한국의 교육을 주제로 삼아 한국의 교육사정을 세계에 올바로 알리는데 큰몫을 했다.

첫항해에 동행은 못했으나, 아들을 뒤히 참여시킨 H·A·로드 교수는 신학박사로 성서와 영어를 가르쳤고「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A 1884~1934」(미국장로교의 한국선교사)를 저술했다.

이 저서는 한국의 개화시기에 기독교선교사업이 시작된 과정과 전도사업이 이룩되기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있다.

피셔박사는 가장 중요한 선원이었다.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로서 보다는 요리사로서 우리의 여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4父子포함 6명이 乘船

◇꿈의보트「검은오리」號는 덩치에비해 닻은 돼나 컸지만 정박중엔 약한바람에도 몸부림을쳤다.

아버지가 船長、피셔博士는 料理士로 솜씨誇示

플·로드는 여러번 항해경험이 있는데다 한국식 청소솜씨를 때 인정받았던것 같다.

우리는 채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항해에 나섰다. 필요한 일이 반절도 끝나 기본이었다.

우리는 모터를 사용해서 만만한 속도로 움직여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돛을 펴내는 펌프가 말을 듣지않아 다시 고쳐야했으나 항해속에 계획을 변경하기는 너무 늦었다.

이같은 YACHTING時의 기록처럼 선장입장에서는 허술한 출항을 자랑할수 밖에없었던 것같다. 다행히 곧 펌프가 수리돼 항해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돛대가 바람을 듬뿍 받을때는 빠른 속도로 항진했다. 바다가 잔잔할때는 닻을 내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곤했다.

파도가 세게 몰아칠때는「검은오리」호가 갯벌에 처박혀 애를 먹이기도했다.

이럴때는 선장과 요리사는 밤새도록 펌프에 매달릴수밖에 없었다.

「꿈의보트」에서의 첫날밤은 악몽의 한밤이었다.

아버지의 기록에의하면 첫날새벽 두시께 보트가 크게 흔들렸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육지에서 불어오는 강한 물살로 배가 몸살을 하고있었다. 제법 큰 물살이 뱃머리를때려 작은「검은오리」는 앞뒤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달리 처할 방법이 없었다. 그자리에 가만히 있을수 밖에는…。

現代人의 健康百科 <286>

감기

감기는 가장 흔하면서 비교적 쉽게 낫는 것이지만 아직 특효약이없다는데서 문제점이 있는 병이라 할수있다。아폴로9호 우주인·제임즈·맥데빗이 우주여행출발직전 감기에 걸려 수억불을 날리면서 달나라여행을 연기해야했던 일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당시 미국 매스컴은 인간이 달나라를 여행하는 시대에 어떻게해서 흔한 감기하나 다스리지 못하느냐고 화살을 돌렸다。

키는 병원체는 잘 알려져있듯이 감기바이러스이다。그러나 같은 바이러스감염에 의해 걸린 감기라 해도 나타나는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 대기오염물질등으로 만성적인上下기도점막에 손상을 입은 사람에서 더 중증의 상기도감염증을 나타낸다。

감기는 원인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차이를 보인다。그래서 코감기증세를 나타내는 가벼운 감기에서 細氣管支炎을 일으켜 호흡곤란증을 동반하는 비교적 심한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이다。

또 같은 바이러스라 해도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증상을 나타내고있다。그러나 한가지 다행한 일은 감

過勞·담배 많이 피우면 發病…特效藥 없어

감기는 전세계 근로자결근원인의 60~80%를 차지하고있으며 1회평균 결근일수가 3~4일이나 된다고한다。이를 결근에 따른 경제손실로 따진다면 엄청난 액수가 될것이다。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알려진이야기다。큰병의 상당수가 감기에서 발단되고 있는것이다。흔히들 감기쯤이야란 말을하고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감기증상만큼 조심해야할병도 실은 많지 않은것이다。감기를 일으

나타난다。대체로 감기증상은 상·하기도에 염증이 있다든지「알레르기」성 체질이 있는 사람, 방어기전이나 면역학적기능이 약화된 사람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질환을 일으킬수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현재1백50여종이알려져있으나 이중 말썽을 일으키는것은 주로리노바이러스등 몇가지 종류이다。

독감 또는 유행성 감기로 불리는 인플루엔저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대유행을 하고있다。인플루엔저는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온 사람이

기바이러스가 인체내에 침입한다해도 모든사람에서 병이 발병하는것이 아니란 것이다。

신체의 방어기전이 약화된 老齡者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만성肺질환환자, 몸이 쇠약해있다든지 생활의 리듬을 잃어 피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병하고있다。따라서 감기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

金 建 烈
【醫博·서울大의대내과교수】

文化短信

한국대표 2명모집 소롭티미스트 協會

세계전문직 직업 여성들의 봉사단체인 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는 내년 미국협회가 캐나다 온타리오 웰프대학교에서 열게될 유드·세미나(젊은이를 위한 세미나)에 대비, 유드·세미나에 참석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고교재학생으로 토의주제인「인종차별, 피난민의생존권, 여성학대문제」등을 영어로 자유롭게 토의할수있는 학생 2명. 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는 82년 1월말까지 희망자를 모집, 스피치·테스트를거쳐 참가자를 뽑으며 참가여행비 일체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문의는 강남구 신사동 467의10 동회사무실(☎0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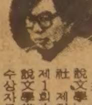
中共여자野球팀 臺北방문 來年 6월 世界大會 참가

【홍콩18日=聯】中共여자야구팀은 내년6월1일부터 11일까지 臺北에서 거행되는 제5회 세계여자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로했다고 17일 홍콩을 방문한 中共여자야구팀 단장 夏朗이 밝혔다.

中共여자야구팀은 19일 홍콩에서 거행되는 국제여자야구초청대회에 참가하기위해 이날하오 홍콩에 도착했는데 夏朗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中共야구연합회의 결의사항을 설명했다.

夏朗은 또 지난5월 국제야구연맹의 한 간부가 北京을 방문했을때 臺北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세계여자야구선수권대회에의 참가문제를 논의하면서 中共팀을 초청했다고 밝히고 臺灣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한대로 국가호칭과 국기·국가를「中國臺北야구협회」의 호칭과 깃발·노래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회 小說文學賞 文淳太씨 선정



月刊「小說文學」社 제정 제1회小說文學賞 수상자로 文淳太씨(사진)가 선정됐다。수상작은「말하는 돌」。상금1백만원。심사위원 鄭[illegible], 李炳注, 金允植씨등.

시상식은 82년2월초에 열린다。수상작「말하는 돌」은 6·25의 비극의 잔영을 재로한 소설로 발표당시 문단의 주목을 받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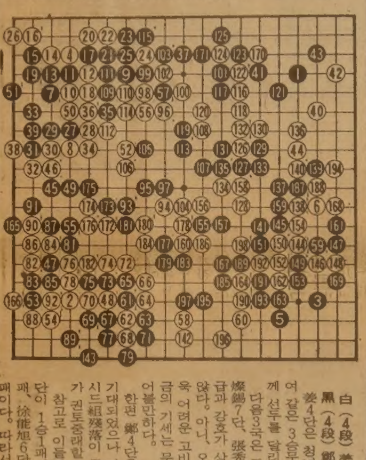
柔道界원로 李濟晃씨 별세

韓國유도원로 李濟晃씨가 16일저녁 서울城東區九宜洞 자택에서 별세했다。72세.

故李씨는 해방직후 韓國유도회창립에 산파역을 맡았고 지난53년에는 조선[illegible]유도학교를 세워 교수하면서 국가대표선수를 비롯 수많은 유도지도자를 길러낸 韓國유도계의 큰별。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 總譜 198手完 白不計勝 (각 5시간)



白(4段) 姜勳 〈3勝0敗〉
黑(4段) 鄭壽鉉 〈1勝2敗〉

姜4단은 청년기예입관 연속3승하여 같은 3승무패인 張秀英5단과 함께 선두를 달리게되었다.

다음3국은 그러나 徐奉洙7단, 河燦錫7단, 張秀英5단등 이른바 정상급과 강호가 상대여서 결코 만만치 않다. 아니, 오히려 나머지 북이 더욱 어려운 고비라하겠는데 아뭏든 지금의 기세는 무섭기만하니 기대를 걸어볼만하다.

한편 鄭4단은 新參멤버로 활약이 기대되었으나 어언 2패를하여 우선 시드組殘落이 문제시 되고있다。여기가 권도중대한 시기인가 싶다.

참고로 이들의 전적을 보면 徐7단이 1승1패、河7단이 역시1승1패、徐能旭6단 2패、姜哲民6단 3패이다。따라서 도전권의향방은 아직 미지수。이제부터 치열한각축전이 예상되는 것이다.

姜4段도 破竹의 3勝

이바둑은 예상했던대로 시종일관 팽팽한전투. 그것도 어마어마한 대마의 공방전으로 손에땀을 쥐게했다。

특히 그하이라이트는 좌상귀와 좌변의 전투였다。黑15이하 34까지의 정석은 약15년전에 유행했던 것으로서 이를테면 溫故知新,그리고 유행이 돌고도는 모습을 보여준대목이었다。

좌하변 黑61이하의定型에서 黑69、71은 원래 악수인데도 鄭4단은 새로운수법을 시도한것이지만 역시 실수없이 대응하는 바람에 대실패로 끝났다。즉, 白82의 好着으로인해 좌변黑4점이떨어지고더구나 45이하의黑대마가도망자신세. 白의長征과 이에대항하는黑의탈출이볼만했으나黑은일거에그르친형세를만회하지못하고 욕쇄수단을취했다。80…62。【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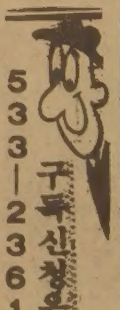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보,또 낮잠을 주무시는거예요?" "좀더 건설적인 일을 찾아 봐야하지 않겠어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 여보" "그럼 생각하며 잠자게 해줘"

광고문의
533·2361



구독신청은
533-2361

→ 광고 도안
→ 결혼·회갑 촬영
→ 한국 비데오 테프 판매·렌트 300종

善美 선미광고 B531·6430 R746·3712 ⌐ 본부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가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밀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27萬人口에 綜合병원 全無

報恩·沃川·永同지방주민 新設건의

대수술 응급患者 치료못해

30개醫療기관 專門醫 5명

醫保2、3차진료도 大田까지확대요망

【永同=聯】報恩·沃川·永同등 忠北남부지방의 27만여 주민들은 18일 이지역에전문의료기관이 없어 진료혜택을 제대로 받을수 없다고 지적、종합병원을 신설해줄것을당국에 건의했다。이와함께 이지역 3만여의료보험가입자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은 淸州로 한정돼있는 2·3차진료지구를 충남大田지역까지 확대해줄것을건의했다。

이지역주민들에따르면이날 현재 3개군내의 의료기관은 병원2개소(沃川1、報恩1)、일반의원 20개소(報恩6、沃川5、永同9)、치과의원 4개소(報恩1、沃川1、永同2)·보건소 3개소등 모두 29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2、3차진료기관은 2차진료기관인 沃川성모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라는것。또 이지역내 병·의원들은 내과·외과·산부인과등 일반진료과목만 설치하고 전체의사 45명중 전문의를 5명밖에 확보하지 못하고있어 안과·비뇨기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등 진료와 대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들은 40~1백㎞나 떨어져있는 淸州·大田·金泉등지로까지 나가야하는 불편을 겪고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 환자측의 비용부담이 가중된것은 물론 후송도중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못해 大田등 원거리병원에 도착하기전에 숨지는 불상사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것이다。

위험…국교5m앞 철길

1천60여어린이 보호대책 호소

【東海=聯】강원도東海市 釜谷洞 남호국민학교정문 5m앞에 철길이 지나고있어 이학교 1천60여명의 어린이들은 철길사고의 위험에 항상 불안하고 기적등 기차소음으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다。

학교앞을 통과하는 이 철길은 서울~江陵간을 연결하는 영동선으로 정기및 부정기열차가 하루 27회씩 왕래하고 있다。

정문에서 5m앞에있는 이철길을 달리는 열차는 학교정문 앞에서 남쪽으로 1백m 떨어진곳에 급커브가 있고 북쪽50m지점에는 터널이있어 구조적으로 경적을 울리지 않을수 없다。

이때문에 남호국교 전교생들은 기차가 교실앞을 지날때마다 기적과 기차가 달리는소음에 수업을 중단해야하는고역을겪고있다。

철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있는 2학년1반과 6학년2반은 기차소음이 더욱심해 수업중단은 물론 어린이들의 정서적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

鐵道이설공사때 排水시설 불량

6억水害補償요구

昌原 龍院부락 市·鐵道廳에

【昌原=聯】昌原市 沙火洞 龍院부락 2백34가구 주민들은 신昌原역 철도이설공사와 산업기지대로 개설때 마을앞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난75년이후 80년까지 해마다 물난리를 겪어 농작물과 재산등 모두 5억6천5백80만5천5백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철도청과 昌原市에 이를 보상해주고 수해안전지대로 이주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8일 龍院부락 수해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趙末同·55)가 각계에 보낸 탄원에 따르면 지난74년까지는 수해가 없었으나 지난 74년 신昌原철도이설공사를 하면서 50여년전에 설치됐던 철교 3개소와 하수관 8개소를 없애고 직경 1m정도의 3열짜리 하수관 1개소만 설치한데다 건설부가 산업기지대로를 시공하면서 연장 3㎞의 마을앞대로에 폐수박스 2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아 큰 물이나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79년8월25일 태풍 주디때 하천제방이 무너지면서 급류가 마을을 덮쳐 2명이 죽고 가옥이 무너지는등 해마다 홍수때면 모두 5억6천5백98만5천5백원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昌原市당국은 천재지변과 지리적조건 때문이므로 피해보상을 할수 없다고 밝혔다。

교량建設 중단放置

주민通行 큰 불편

【天安=聯】충남 牙山郡 鹽峙面江淸里와 新昌面佳德里사이의 曲橋川을 가로질러 총연장 2백m의 江淸橋건설공사를 하면서 1백20m만 부분적으로 완성시킨후 3년이 지나도록 방치、인근주민들의 통행에 큰불편을 주고있다。

이 江淸橋는 牙山郡이 비2백여m의 曲橋川을 사이에두고 鹽峙面江淸·山陽·鹽星·書院里주민들과 新昌面佳德·新谷·官華·佳內里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있는 것을 해결해 주기위해 지난78년12월 군비7천3백14만원을 들여 공사에 착수했으나 6개월만인 79년5월 1백20m를 부분적으로 완성한후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지역 주민들은 나룻배를 타고 曲橋川을 건너다니다가 지난76년부터는 牙山郡이 가설해준 출렁다리를 이용했으나 78년7월20일 수해로 유실돼 현재는 미완성 江淸橋와 제방사이에 임시로 통나무다리를 놓고 통행하고 있다。

◇어이없는 慘事현장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 西歸浦市 中文洞天帝淵 제2폭포위 현수교 붕락사고현장。 불량기자재를사용한 시공업자의 부실공사와 공사발주자의 감독소홀이 겹쳐일어난 어이없는 참사였다。【西歸浦=聯】

8百톤감당 設計한 다리 1百13톤도 견디지못해

西歸浦 天帝淵폭포 현수교崩落 사고원인

不實工事·不良資材 사용이 큰原因

問題의 國産쇠고리 製造元 아리송

受注·下請 責任미뤄

뉴스추적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공사중 무너져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西歸浦 天帝淵 현수교붕락사고는 감독소홀과 고도로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대형공사를 시공하면서 부실공사를해 빚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였다。

이번 사고는 이 현수교가 앞으로 관광지인 濟州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도내 유일의 현수교란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치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시공업은 업자들의 부실공사 ▲공사발주자의 감독소홀 ▲불량기자재 사용 여부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완공수일을 앞두고 마무리작업을 하던중 이 현수교 동쪽 메인로프를 고정틀에 연결하는쇠고리가 끊어짐으로써 일어났다。

8백68톤의 하중을 감당할수있도록 설계된 이현수교가 다리60톤과 공사인부와 공사용자재 53톤등 모두 1백13톤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를 낸것은 이연결쇠고리공사의 부실과 불량품인 자재를사용하여 빚어진사고라는점을 쉽게 말해주고있다。

이 공사를 하청맡은 富鋼산업은 메인로프등 기타 자재는 모두 수입품을사용했고 문제의쇠고리만은 국내제품을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富鋼산업이 다리구조물의 주요부분인 쇠고리만은 국내제품으로 사용했고 이 쇠고리가 어디서 제조된것인지는 富鋼산업의 현장대표 李하윤씨와 현장부책임자 李중오씨가 숨진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있다。

공사시공청인 濟州관광개발공사는 이다리의 설계를 서울동명기술공단에 의뢰、전체건설은 三星종합건설에 맡겼으며 三星종합건설은 이공사의 20%를차지하는토공과구조물제작공사만 스스로 하기로하고나머지 80%의 다리가설공사는 서울富鋼산업에 다시하청을주고 공사에들어갔다。

事故책임 철저히 규명 再發막아야

사고가나자 三星종합건설은 다리공사의 하청은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富鋼산업측도 자재가 정상품이었고 절단된 고리역시 설계대로 부착했기 때문에 설계상미스가 있을지 모르나 공사상하자는 없다고 각기 책임을 미루고있다。

종전의 대형현수교는 외국기술진이 감독、시공됐었으나 이번 공사는 하청업체가 맡아해왔다。

더구나 사고쇠고리에 대한 공사전 강도실험을 비롯 부분적으로 공사가 끝날때마다 공정검사를 어느정도 철저히 했는가 하는점도 사고후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곳주민들은 「만약 다리가 완공된후 사고를 빚었다면 더욱많은 희생자를 냈을것이라고 한난하고 있는데 이번사고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다시는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참사는 더이상 없어서는 안될것으로 지적되고있다。【西歸浦=聯】

用達車 미터器 料金制 무시

거의口頭계약 3천원까지웃돈요구

【大田=聯】大田시내를 운행하고있는 대부분의 용달차들이 미터요금을 무시한채 멋대로 구두계약에 의한 요금을 받고있어 미터요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충남大田시내 용달차의 경우 기본주행요금 1천8백원에 5백m초과때마다 주행요금이 1백80원씩 추가되고있으나 거의 모든 용달차들이 미터요금제를 무시한채 구두계약에 의해 2천5백~3천원을 받고 大田시내를 운행하고 있는것。

40代精薄男子 燒死

촛불켜고자다 화재

【大田=聯】17일하오10시께 충남論山郡鍊武邑安心洞李相九씨(40)집에서 불이나 정신박약자인 이마을林영빈씨(47)가 불에타 숨졌다。

林씨는 이날밤 李씨의 빈집에 들어가 헌 벽단위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 촛불이 넘어지면서 벽단에 인화돼、불이나 변을 당했다。

天安~溫陽간 국도 확장안돼 輪禍급증

【天安=聯】수도권지역과함께 전국도중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天安—溫陽간 국도가 왕복2차선이 확장되지 않은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등 포화상태를 이루고있다。

忠南서부지방인 禮山을 비롯、洪城·唐津·瑞山·保寧·靑陽·大川·舒川등지로 연결되는 天安—溫陽간 국도는 가을철이면 김장용 무우·배추를 운반하는 대형트럭들이 줄을잇고 여름철이면 해수욕장、봄·가을철에는 관광지를 찾는 승용차및 관광버스들이 몰려들어 고장이나거나 조그만 사고가 나도 차량들이 1㎞이상밀려 심한 소통난을 빚고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天安—長項간 국도로 통행하는 주민들은 「서울등지를 다녀올때 가장 차량소통이 안되는곳이 天安—溫陽간으로 이구간은 하루빨리 확장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허가미끼 뇌물收受

水道檢針員을 구속

【江陵=聯】江陵경찰서는 17일 위법건물을 양성화해준다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받은 江陵시청 수도검침원 金容學씨(39·江陵市校洞825의95)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부지 買入 3년째 工團조성 제자리

天原기계공단 入住업체 要件못갖춰

【天安=聯】충남天原郡修身面기계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부지 매입을 한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天原기계공단 조성위원회(대표 金興玉)가 추진하고있는 이공단 조성사업은 지난79년11월26일 건설부로부터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고시를받아 修身面海倉里·新豊里·長山里일대 공단조성지역 45만평중 46%인 20만6천평을 매입한후 지난10월10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건설부고시 373호)를 받았으나 공단조성을 위한 아무런 진척을 보지못하고 있는것。

이같이 공단조성이 부진한것은 이공단에 유치될 1백56개 기계공장들이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인원、자산부족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융자혜택을 받을수 없기때문이라는것。

食餌요법言語교화敎育

春川 啓聲학교 3년간 實施

血液型에 알맞는 營養섭취

經穴마찰운동도…52명効果

언어장애어린이들에게식이요법을 통해 언어교육을 실시한 결과 말을 제대로 하지못했던 어린이들이 쉽게 말을 익히는등 큰성과를 거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어장애자 특수학교인 春川啓聲학교(교감 洪鍾允·60)는 지난3년동안 말을 제대로하지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린이69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에따라 알맞는 영양음식을 섭취하게 하는등 식이요법과 얼굴등 경혈(經穴)마찰운동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유지에 힘쓴 결과 이중 75%인 52명이 3년만에 고르지못했던 맥박운동수가 정상어린이와 같이 정상으로 돌아잡고 말을 쉽게 배울수있는기초「아」음발성지속시간도 기준치18초 이상을유지하는등 언어교화에 성과를 거두었다는것。

이같은 성과는 40여년동안 한방의학을통해 건강비법을연구한 洪교장이 지난79년10월부터 어린이들의 언어장애 요인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의차이와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 오는 고르지못한 맥박운동 때문이라고 판단、건강유지를 위해 식이요법과 건강비법운동을 실시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洪교장은 어린이들의 혈액형을 조사、A형의 어린이에게는 매주 화요일마다 쇠고기 1백g씩과 무우·콩나물·호박·도라지등을 급식했고、B형의 어린이에게는 수요일에 닭고기와 과·마늘등을、O형의 어린이에게는 목요일에 돼지고기와 배추·미나리·가지등을、AB형의 어린이에게는 금요일에 A형과B형의 음식물을 절충해 급식하는한편 매일아침마다 얼굴등을 손으로 마찰시켜 혈액순환등을 왕성케하는등 건강유지에 힘썼다。

3학년 高光文군(10)의 경우 3년전 이학교에 입학할때는 말을 제대로하지못했으나 식이요법등을 통해 현재 간단한말을 할수있게됐다。

한편 洪교장은 언어장애어린이들에대한 언어교화교육의 성패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밀접한관계가 있다고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혈액형에따른 영양음식물을 많이 섭취케하는등 식이요법을 실시해 어린이들의 언어교화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春川=聯】

올림픽 主要施設物 85년까지 끝내

組織委 歐美에 調査團 파견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는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중요경기장시설을 85년말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SLOOC는 올림픽에 대비한 기존경기장시설을 점검、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ISF(국제경기연맹)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보수하고 부족한것은 신축할 계획이다。

SLOOC는 이같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년1월중 올림픽시설관계조사단을 약2개월간에걸쳐 西獨(뮌헨)、英國(런던)、美國(로스앤젤레스)、캐나다(몬트리올)、日本(도쿄)등지에 파견할것으로 알려졌다。

SLOOC는 올림픽에 앞서 아시안게임이 86년에 개최되기때문에 경기장시설을 비롯한 중요시설을 85년말까지 끝내기로 한것이다。

내년엔 80게임씩

프로野球委 週3곳서 3회로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18일 하오 반공연맹회의실에서 1차이사회를 열고 82년시즌 팀당게임수를 80게임으로 조정、확정했다。

각팀을 대표한 이사들은 팀당 28명의 적은선수로는 1백30게임을 치르는 것이 무리라고 지적、당초 예정게임수에서 50게임을 대폭축소시켰다。

이로써 프로야구경기는 3개 구장에서 주3회로 열리게 됐다。

게임수의 대폭적인 축소조정에따라 당초 예산에 큰변화가 생겨 팀당 적자폭도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LA올림픽부터 11種目으로擴大

세계射擊聯

세계사격연맹은 오는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여자3개종목을 비롯、4개종목을 신설、모두 11종목의 金메달을놓고 경기를 벌이게됐다고 17일 대한사격연맹에 통보해왔다。

세계사격연맹은 여자사격의 발전을위해 84년올림픽부터 공기소총10m(40발) 스탠더드소총 3자세50m(3백발)스탠더드권총(3백발)등 3종목에다 남자공기소총 10m(60발)를추가하여모두4종목을신설키로했다고밝혔다。

印尼 아메리코選手

30일 金相賢에도전

【자카르타17日AFP=聯】인도네시아의 토마스·아메리코선수는 OPBF(東洋·태평양권투연맹) 주니어 웰터 급챔피언인 한국의 金相賢과오는30일釜山에서타이틀전을갖기위해16일자카르타를떠났다。

아메리코는 지난8월 WBC(세계권투평의회) 동급챔피언 사울·맘비와의 타이틀전에서 판정패한바 있다。

한국은행	72	34—30	62	대동
		38—32		
복지단	64	26—29	62	삼성
		38—33		

스페인2대0樂勝

對벨기에 蹴球

【발렌시아(스페인)17日AP=聯】내년 월드컵축구 대회주최국인 스페인은 16일밤 발렌시아에서 벌어진 국제친선축구경기 對 벨기에 전에서 전·후반 각각 한골씩 넣어 2—0으로 이겼다。

流星의 賊 〈26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⑳

홍사의 말에 계남이 정신을 차렸다。

『홍사、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계남이 정색을 하고 물었다。

『무엇 저 말에 잘못이 있었읍니까』

홍사가 어마지두 했다。

『일본에 태어났더라면 이렇구 저렇구 했는데、내가 조선에 태어난 것이 어떻단 말이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옵고、조선의 사정을 모르니까 일본의 예를 들어 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좋소。나는 우리 조선을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렸기에 따져 본 얘기요』

『천만에 말씀、내가 감히 어떻게 귀국을 빈정대겠소。다만 홍공과 같은 인재가 우리 일본에 있었다면 벌써 상장군(上將軍)을 되어 일성지주(一城之主)가 되었을 건데、현재 홍공께선 당하군관(堂下軍官)이 아니오이까。그래 아쉽다는 뜻이오이다』

『우리 조선에선 인재가 많아서 그렇소。나같은 약관(弱冠)은 족탈불급(足脫不及)할 어른이 우리 나라엔 부지기수 하오』

『그렇데죠、그렇데죠만…』

하고 홍사는 말꼬리를 흐렸다。얼마라도 칭찬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러했다간 홍계남의 비위를 거스릴까봐 겁이났던 것이다。

홍사의 이름은 히라또쇼오기찌(平戶庄吉)라고 했다。히라또(平戶)는 원래 평민이어서 성이 없었는데 히라또섬의 출신이라고 해서、통사로서의 직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하기 위해 히라또란 성을 주었다고 한다。

히라또는 조선의 사신 가운데선 홍계남을 제일로 꼽았다。지위는 비록 당하군관이었지만 풍채와 용신이 남달리 뛰어났을뿐 아니라、그 총명함이 또한 출중했던 까닭이다。

그런데 히라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홍계남이 그 지위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었다。그 까닭이 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홍계남의 출생이 서출(庶出)이라는데 있었다。이어 히라또는 조선에선 서출이면 아무리 훌륭해도 당상관(堂上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까 히라또가 계남을 보고

『일본에 태어났더라면…』

운운한 것은 그러한 심적배경(心的背景)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히라또는 계남과 가까이 할수록 그에게 친근감을 느꼈고、조선에 있어서의 그의 처지에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그래서 은근히 홍계남을 일본에 붙들어 둘 수가 없을까 하는 궁리를 하게 되었다。그러던 차、하까다에 체재중 홍계남을 알게된 가나이사범(金井師範)이 계남의 인품과 기량에 매혹되어 소서행장(小西行長)의 막료인 한사람에게

『홍계남 같은 인물을 일본이 가질 수 있다면 일국의 성으로써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이란』

고 했었다。

그런데다 계남이 서출이라서 조선에선 출세의 기회가 막혀 있다고 듣자、어떻게 하건 계남의 환심을 사도록 일련의 계획이 꾸며졌다。

통사 히라또 쇼오기찌가 적극적으로 홍계남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그 계획 가운데의 일환이었다。통사의 호의를 단순한 호의로만 받아들이고 고맙게 여기고 있었던 계남이 이런 계획을 알 까닭이 없었다。

고침 17日字「流星의賊」262회 가운데 … 바로 잡습니다。

謹賀新年

지난 1년간 정든 고국의 식품과 장미표 쌀 (팬아시아 로스)을 이용해주신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즐거운 성탄과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PAN ASIA FOOD CO. LTD.
5420 MAINGATE DR. MISS.
전화 : 624—05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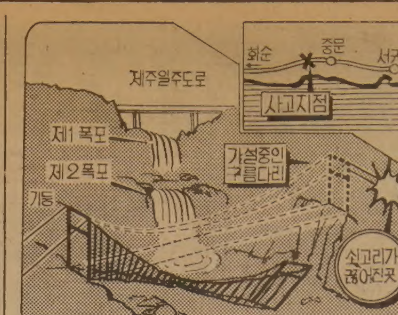
Pan Asia
WANG
味元 미원

Pan Asia
三養라면
泉

設計무시「와이어 바」任意제작

圖面압수·現場감독 소홀등 조사

檢察, 懸垂橋 붕괴원인수사



【西歸浦=魁】天帝淵제2폭포 현수교(관광용구름다리)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제주지검 趙晋濟검사는 18일 하청업체인 富鋼산업(대표 金순택)이 설계도면대로시공하지않고 앵커(고정틀)에 고정시키는 와이어바를 임의로 제작해 메인로프를 연결한으로써빚어진것으로밝혀냈다。

검찰에 의하면 설계도면상으로는 이다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경 50㎜의 와이어로프로모두가 끝부분에 길이 1.5m 직경 70㎜의 쇠막대끝에 직경 15㎝의 쇠고리가 붙은 와이어바로 연결, 고정장치인 앵커에 직경 5㎜짜리 쇠막대못으로 고정시키게돼있다는것。

그러나 三星종합건설로부터 공정의 80%를 하청받은 富鋼산업은 단일쇠봉치로 제작토록설계된 와이어바를 설계를어긴채 쇠막대부분과 고리부분을 분리, 길이 20㎜의 나사로 연결했기때문에 이나사가 다리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다리가붕괴하고 말았다는것。

이에따라 검찰은 三星종합건설이 당초 제주도 당국에 제출했던 설계도원본을 압수하고, 시공책임회사인 三星종합건설 현장소장 吳成寅씨(53), 富鋼산업대표 金순택씨, 공사감독기관인 제주관광개발공사 공무관 金根榮씨(41)등 관계자를불러 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당초8백68톤의 하중을 견딜수있도록 설계된 이 다리가 다리자체하중66톤과 공사용자재, 인부등의 무게 1백13톤을 견디지 못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진점을 중시, 연결고리를 비롯한 부품의 규격품사용여부, 설계상 결함, 현장감독 소홀등에 대해집중적인수사를펴고있다。

이다리는 三星종합건설이 제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4억4천6백75만원에 도급맡아 착공, 기둥을세우는 토목공사와 구조물제작 작업만을 하고 전체공정의 80%에해당하는 다리가설공사는 모두 富鋼산업측에 하청을 준것으로밝혀졌다。

한편 교량추락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가운데 2명이 더 숨져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사상자명단은 다음과같다。

◇사망(11명)

▲尹명학(33·서울 冠岳區奉天洞산81)▲韓승훈(西歸浦市中文洞)▲李종호(36·서울 江西區 傍花洞609)▲徐한수(14·서울 冠岳區奉天洞산81)▲金종태(46·경기富川市三井洞190)▲염순학(26·경기江華郡江華邑官廳里669)▲金창근(21·西歸浦市 中文洞)▲李학윤(61·서울城東區紫陽洞301의4)▲염규성(29·서울冠岳區新林洞산100)▲高정규(37·西歸浦市中文洞)▲李경열(23·서울永登浦區新吉洞242의41)

◇부상(8명)

▲정호준(西歸浦市 中文洞)▲朴용수(서울)▲金영철(서울)▲진종철(7·濟州市 1徒2洞 1624)▲尹덕열(27·서울冠岳區奉天洞산81)▲金용우(7·西歸浦市 中文洞)▲신봉식(忠州市)▲金정기(22·西歸浦市中文洞)

★관련기사10면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최고 1千5百萬원 天帝淵死亡者 보상

天帝淵구름다리붕괴 사고 수습대책본부는 18일 이번사고로 숨진 사망자(어린이2명제외)들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돼있어 1인당 최하7백60만원~최고1천5백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게됐다고 밝혔다。

◇慘劇빚은 현수교 天帝淵제2폭포 계곡에 폭삭 내려앉은 현수교。中文관광단지와 天帝淵폭포를잇는 관광용 현수식 철제다리는 하청업체가 설계。【西歸浦=魁】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한국인25명 全員辭表

日勸業銀行 서울支店직원 차별대우抗議

8일의 8명辭表도 모두受理

서울中區南大門路2街118 일본 제일권업(勸業)은행 서울지점(지점장 佐野晃郎·50)에 근무하는 한국인직원 8명이 은행측의 차별대우에 항의, 사표를 제출해 17일 수리된데이어 18일 나머지 한국인직원 25명전원(결혼휴가중인 직원1명제외)이 집단사표를 냈다。

이지점 노조지부장 金德基씨(35·과장대리)와 劉承烈씨(37·부과장)등 직원 8명은 지난10일 은행측이 종전까지 의료비의80%를 부담하던것을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고쳐 55%로낮춘뒤 직원들에게는 이같은사실을 통보조차 하지않았으며 지난7월의 임금인상협상때 노조측이 임금인상 요구조건을 완화하는대신 은행측이 주택매입자금 2천만원씩을 융자해주기로 했던 약속을 묵살한것은 차별대우라고 항의, 사표를 냈는데 17일 일본본점으로부터의 통보라면서 전원 사표를 수리했다。

한국인 직원에대한 사표가 수리되자 金起仙씨(25·여)등 나머지 한국인직원 25명도 18일『일본인직원과의 차별대우가 시정되지않고 동료직원들이 모두 복직되지 않는한 더이상일할 수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제일권업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72년2월7일 개설, 일본인직원은 지점장을 포함 5명뿐이며 나머지 34명이 한국인이다。

日, 한국에확인요청 엔貨위폐 한국製造

【東京17日=魁】일본경찰은 17일 효오고(兵庫)縣 아마가사끼(尼崎)市에서 최근 발견된 5천엔권 위조지폐가 한국에서 제조된것이 아닌가보고 駐日 한국대사관을통해 한국경찰에 확인을요청했다。

일본경찰이 이번에 발견된 5천엔권 위폐가 한국에서제조됐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하는것은 지폐일련번호와 제조수법이 지난여름 부산에서발견된 1만엔권 위조지폐와같기때문이다。

현직女中校長이 2重就業 建設會社서 月30만원받아

표주박

○…1급화약취급기술면허를 소지하고있는 현직여중교장이 건설회사에 기술자로 2중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주식회사 金剛에 따르면 지난7월28일 농업진흥공사 晋州南江사업소가 발주한 晋陽郡鳴石지구 저수지 농업용수개발공사를 시작하면서 경남居昌의 K여중 鄭모교장(59)을 화약담당자로 채용, 지금까지 월3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왔다는것。

○…金剛측은 지난7월 화약취급1급면허를 가진 기술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않은 鄭씨를 화약담당책임자로 채용했었으나 최근에 鄭씨가 현직 교장신분이란 사실을뒤늦게 밝혀내고17일자로해고조치했다。

한편 居昌郡교육청은 진상을조사해 적절한 조치를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晋州=魁】

聖誕節·新年連休 通禁해제 議決

국무회의는 18일 하오 크리스머스와 新年 휴일 3일동안 야간통행금지조치를 해제키로 의결했다。

해제기간은 25일 0시부터 새벽4시까지, 82년1월1일 0시부터 3일새벽 4시까지이다。

변칙商術…퇴폐술집 盛業

梨泰院등 외국인상대… 일반業所까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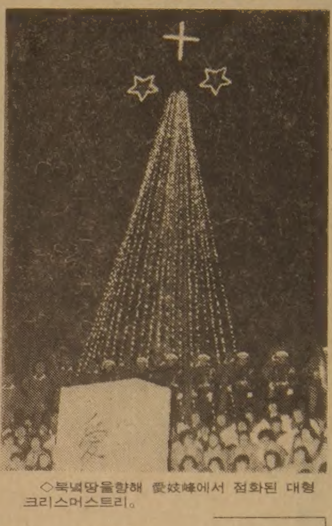
밤10시넘으면 점차 煽情化

손님끌기 業所경쟁…原色쇼

警察단속해도 罰金만내고 營業계속

일부 유흥업소에 등장한「핑크무드」상술이 새삼「퇴폐성시비」를 불러 일으키고있다。술꾼들 사이에 은근히 알려져 있는 변태퇴폐쇼가 확산경향을 타고 있기때문。초저녁엔 가벼운 디스코쇼를 보여주다가 밤이깊어지면 누드쇼, 퇴폐쇼등으로 바뀌는이쇼는 처음엔 외국인 상대업소에서 시작된 영업형태였다。그러나 불황타개라는 이유로 점잖은 일반유흥업소까지 하나둘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일부업소에선 더욱 노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있는 실정。

국제관광과 연결해서 이정도의 환락가는 서울에 있어도 좋다는것인지、유흥업계의 질서를 깨는 퇴폐풍조의 요인으로봐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전지、연말시즌을 앞두고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새로운「서울의 밤풍경」이다。



◇북녘땅을향해 愛妓峰에서 점화된 대형 크리스머스트리。

17일밤 8시 서울龍山區梨泰院洞 해밀턴호텔 맞은편골목 양쪽에 즐비한 디스코클럽의 요란한불빛속에 디스코음악이 넘실거린다。대부분외국인상대업소들이어서 한국특수관광협회 회장이름으로「내국인 출입금지」란 간판이 붙어있지만 내국인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출입하고있다。X클럽안으로 들어서면 자욱한 담배연기속에 선정적인 조명이 춤춘다。홀 한가운데에 마련된 간이스테이지위엔 아라비아풍의 얇은 망사옷을 입은 디스코걸이 배꼽을 드러낸채 자극적인 춤을 추어대고 여기에 맞춰 플로어에선 십수명의 남녀가 디스코를 즐기고 있다。60여개의 좌석엔 외국인은 십여명에 불과하다。웨이트리스들은 아슬아슬한 스커트를 입고 테이블사이를 오가고 있다。

밤9시가 넘자 디스코걸은 망사옷마저 벗어던지고 비키니차림으로 손님들을향해 더적극적인 춤을추기시작한다。홀 곳곳에서 탄성이 터진다。이곳에선 손님의 요청에 따라 비즈니스 걸을 불러 준다。이들이 하는일은 호스티스와 다름없다。

환락의 분위기는 밤10시를 넘어서면서 무르익어가게 마련인데 얼마전 단속이 있기전에는 쇼가 요란하게 펼쳐지는 시간이란다。

6개월전에 한국에 와 이클럽에만 다닌다는 한 미군사병은『이클럽의 스트립쇼가 매우좋다』고 털어놓았다。중요한 부분을 투명한천조각으로 가리고 춤을추는데 손님들이 팁을주는것에 비례해 아슬아슬해 진다는것이다。

이같은 업소는 梨泰院과 漢南洞일대에만 50여개소에 이른다。외국인을 상대로생긴 이업소들은 업주가 외국인으로 된것이 반정도。전체업소중 3분의1이무허가。

특수관광영업허가가 난업소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의출입이 금지돼있다。단 외국인 한사람이 2명의 내국인을대동해서 출입하는것은 가능하다。그러나 실제로 이같은원칙은 무시된지 오래다。술을 마시는 외국인만으론 경영이 어렵다는것이 업주들의변명이다。그나마 장기적인 불황으로 발길이 뜸해지자 3~4개월전부터 누드쇼를 마련, 다시 내국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업소마다 대개 1~2명의 디스코 걸이 손님의 눈요기감으로 등장한다。이들은 대개 프리랜서란 단체에 가입, 매일 업소를 바꾸가며 출연、하루2~3시간 춤추고 월20~25만원을 받는다。이에 못지않은 수입원이 스트립쇼에의한 팁。이때문에 쇼의 막장이면 으레 테이블사이를 누비며 팁에 상당한 누드쇼를 펼친다。간혹 발선한 소수의 TV무용수들도 월급만으로 지낼수없어 이곳에 아르바이트로 출연하는 일이있는데 이들도 퇴폐쇼에는 참가하지않고 정통 디스코춤만 소개해준다고 한다。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없는것은 아니다。경찰은 주기적으로 변태영업을 공연음란죄로 단속하지만 근절되지를 않는다。

지난 12일 서울龍山경찰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음란한 쇼를 공연한A클럽등 7개업소를 입건하고 쇼걸 10명을 공연음란혐의로 즉심에 넘겼었다。그러나 입건된 업소들은 벌금만 낸뒤 다시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것。

그러나 시내중심가의 변태유흥업소에 비하면전전한편。茶洞、武橋洞、淸進洞、淸溪川4·5街등에 산재한 유흥업소들은 눈요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남자종업원을 거리에 내보내 이미 1차를 거친 손님들에게『홀딱쇼있읍니다』고 유혹、어두컴컴한 홀로 안내해 더 노골적인 원색의 세계로 장사를 한다。

물론 이같은 변태업소가 최근에 생긴것은 아니다。세칭「니나노집」이라 해서 月谷洞、新設洞、新村、弘濟洞、永登浦洞、千戶洞、北阿峴洞에 산재해 있었다。그러나 최근 이변태영업바람이 비교적 점잖았던 도심지술집에까지 침투해 분위기를 망쳐놓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변태영업의 확산은 그 풍조를 수용할 태세가 돼 있지않은 사회에선 무책임한 퇴폐풍조의 양산처가되며 유흥업계의 질서를 깨는 요소가 된다。

「알맞는 수준」으로 자제하는 업자의 양식과 탄력성 있는 단속의 지혜가 아쉽다。【方啟俊기자】

북녘에도 주님의 사랑을…

愛妓峰에 크리스머스·트리點火

성탄절을 맞아 북한동포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통일의 염원을 기원하는 대형 크리스머스트리가 18일 하오5시30분 서부전선 최전방고지인 愛妓峰에서 점화됐다。

내외귀빈과 해군·해병장병들이 참석, 永樂교회 시온성가대가 해병9927부대고적대의 반주로 부른 찬송가가 북녘땅에 울려퍼지는 가운데 높이20m의 대형트리에달린 5천여개의 오색등이찬란하게 불을 밝히자 참석자들은 북녘땅을향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이날 점화식에서 朱永度 世宗大이사장은『성탄일을 맞아 북녘땅에도 자유와 평화가 메아리쳐 북한동포들과 함께 통일의 기쁨을 누릴수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것』을 기원했다。

계열별定員制 總員制로 바꿔

서울大 大學院 신입생 선발

서울大는 18일 대학원신입생 선발방법을 지금까지 계열별 정원제에서 총원제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大는 이에따라 18일 사정이끝난 82년도 대학원 신입생도 우선 박사과정에한해 이같은 원칙에따라 선발, 합격자를 19일 발표할예정이다。

총정원제는 대학원 전체의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정원을 각각 고수하면서 계열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이제도가실시되면 일부 미달된 계열도 우수한 신입생을 타계열지망자중에서 흡수할수 있게된다。

서울대는 그러나 총정원제를 운용하더라도 다른계열에서 넘어오는 모집인원을 해당계열의 50%를 넘지못하도록했다。

서울대는 그동안 계열내하과별정원은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해왔으나 각계열별모집정원은 엄격히지켜왔다。

서울대 내년도 대학원 신입생선발 시험에는 석사과정의경우 2천3백5명 정원에 6천3백34명이 지원해 2·9대1의 경쟁률을, 박사과정의경우 6백25명모집에 9백1명이 지원 1·4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가운데 박사과정의 경우 사회대、가정대、공대등 3개 계열에서 60명의 미달사태를 빚은 반면 의대의 경우 45명모집에 1백78명이 지원 3·9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총정원제의 혜택을 가장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낮趙鼎九의원집 強盜

兇器든20代 네家族묶고金品털어

三扶토건 주식회사 회장趙鼎九(68·국회의원·서울鍾路區新門路2街1의131)집에 지난14일 상오3시30분께 20대강도가들어 趙씨등한가족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달아났다。

범인은 이날 趙씨집담을넘어 1층 목욕탕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는데 안방에 있던 趙씨등 가족4명을 흉기로위협, 한복저고리끈으로 손발을 묶고 반창고로 입을 봉한뒤 趙씨의 양복주머니를 뒤져 10만원권 자기앞수표7장과 趙씨의 누이가 목에 걸고있던 5돈중 금목걸이등 1백여만원어치를털어달아났다。

경찰은 사건이 나자 상부에는 단순절도사건으로 보고하고 보안을 해오다 17일 뒤늦게 알려지자 강도사건으로 고쳐 보고했다。

김採取간 3명死亡 機關고장 凍死한듯

【木浦=魁】17일하오2시30분께 전남海南郡馬山面燕邱里앞 3㎞해상에서 許英海씨(28·海南郡門內面東外里)金昌福씨(26·門內面武古里)金英京씨(24·海南郡北平面方山里)등 3명이 1톤급해태채취선안에서 숨져있는것을 金求會씨(22·門內面武古里)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3명은 16일밤10시30분께 燕邱里 선착장을출발, 김밭을 손질하러 나갔다가변을당했다。

경찰은 이들이타고간 채취선이 기관고장을 일으키자 추위를피해 배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동사한것으로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한국일보 詩壇

治隱先生 에게

薛 龍 勳

가슴 열어 젖히며
蒼天을 날아가는 한 마리 새되어
너는 무엇인가。
북풍 휘젓는 삼갑날 새벽
바람의 [illegible]
운명을 지키는 재로 남아
부질없이
후회같은 그물 치고。

어디쯤 가고 계신가 당신의 발길
落木寒天
서리 묻은 긴긴 밤
내 가난했던 어머님 잎아
그 실타래 풀리듯
蒼天을 나는
한마리
새。

가라, 바람따라
이승 뜨는 모든 것을
罪 풀어주기。燒紙 올리기。

광고는 왜 필요한가….

다음의 글은 미국의 유명광고 전문지가 최고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 광고의 효용성, 광고의기능에 대해 광고주들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인들은 위스키, 커피, 시가등과 같이 광고를 많이하는 상품들을 멀리하는 대신 광고를 심하게 하지않는 대용상품들을 좋아하는 소비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론 어떤 상품들과 서비스들은 광고효과를 보고있다. 예를들면 디자이너 청바지를 들수있다.

원래 광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고가 첫째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찾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을 절약케 한다고 두둔하고 있다. 둘째 광고는 소매가격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셋째 신문, 잡지, 레디오, TV등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수입원이 됨으로써 뉴스와 대중들을 위한 연예 프로그램비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넷째 광고는 대량생산품들을 위한 대량의 판매시장들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섯째 새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여섯째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것이다. 전국 방송망을가진 TV의 하루 평균광고량은 1970년이래 거의 곱절로 늘어나 현재 585건에 달하고있다.

한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한 가정당 681달러씩 소비한 금액과 맞먹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광고성장률은 지난 1900년도초이래 미국인구 성장률보다 빠르며, 1976년이래 GNP와 개인소비지출 상승률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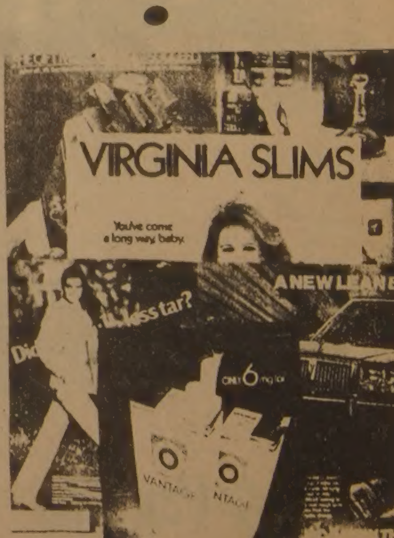
일반상품제조업자들뿐 아니라 지방, 주, 연방정부들도 광고를 늘이고 있다. 예를들면 2년전 미군모집광고에 9천9백달러를 소비했던국방성은 금년에 약 1억4천만달러로 증가시켰다.

광고량의 증가현상이면에는 판매시장을 둘러싼 광고주들의 경쟁에 있다. 업자들은 자기상품이 잘팔리지 않게되면 "다른 광고는 소비자들이 상품선택을 바꾸도록 자극하거나 새상표를 사용하도록 자극하지 전반적인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광고량은 계속 늘고있다. 작년도 광고비용은 총5백46억달러였다. 이것은 국민총 생산고(GNP)의 2.1%와 총개인소비지출액의 3.3%에 각각 해당하며, 미국의 업자들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헐뜯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같은 광고는 보복을 유발시켜 광고게재량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광고요금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모두가 자기의 판매시장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결과 업자들의 생산비용만 오르게 되었다. 광고량의 증가현상은 경제가 침체되고 판매가 부진하면 광고량도 줄어들던 전통적인 광고양상에 이변을 초래했다. 이전에는 장사가 잘안되면 광고예산을 줄이는것이 상식이었으나 이제는 거꾸로 광고예산을 더 높이고 있다.

유명한 초코레트 제조회사인 허쉬가 좋은예이다. 좋은품질 제공이 가장 좋은광고라고 주장하며 전통적으로 광고를 기피하던 허쉬는경쟁회사가 광고를 통해 판매시장을 석권하자 할수없이 광고를 시작했다. 허쉬는 한때 초코레트 제조원료인 코코아값이 폭등, 이윤이 떨어지자 광고를 줄였다. 그결과 매상량이 또 떨어졌다. 다시는 이같은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허쉬는 판매가 부진할 때라도 계속광고예산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도 경쟁업자를 따라잡지 못하고있다.

작년도 광고비용 5백46억달러 가운데 3백3억달러는 전국적인광고에 소비되었다. 이것을 광고매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V 84억달러(28%) ●우편 76억달러(25%) ●잡지 31억달러(8%) ●비지네스 정기간행물 17억달러(6%) ●라디오 10억달러(3%) ●옥외광고 4억달러(1%) ●기타 57억달러(19%).



한국일보사 광고부제공
533-2361~4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출퇴근 하시면서 여아보아 주실분 급구
(스파다이나 블루어 써브웨이 옆)
☎ : 921-8102

밤11시~오전7시(일~목요일)
도낫샾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 : 482-4088

RESTAURANT동업자 구함
BEER + WINE 라이센스가 있고 새 PLAZA내에 SETUP된 전망이 좋은 고급 식당입니다.
꼭 관심이 있는 분은
281-8218(오후2시~5시 사이만)
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HELP WANTED
일본 음식점에 웨이트레스와 키친헬퍼구함.
☎ : 977-9519 195 RICHMOND ST. W.
일본식당마사

닥터 사무실에서 일할분 구함(오후에일할 파타임)
1982년1월부터 시작함.
책임성있고, 참고인 서야함. (이력서를 보내세요)
DR. C. NGAN
2437 FINCH AVE. W. WESTON. ONT. M9M 2E7

접시닦을 학생구함 주3일 근무
☎ : 421-6016

중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융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매매및 양도

도나스및 샌드위치 샾급매
토론토 근교에 위치 뉴 오픈 스토아, 장래성 있는 지역, 비데오 머신으로 렌트카바,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람.
☎ : 1-576-1732,
745-3498 미스타. 고

성능좋은 2 DOOR POP을 급히 구매코자하니 연락바랍니다.
☎ : 239-7267 미세스 신

자동차 급매
75년 로얄·모나코 68,000마일 A-1콘디숀, 보증서 해줌.
☎ : 530-1491 $1295.00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000다운페이 + 스탁
☎ : 251-1397

1972년 DUSTER $350
☎ : 630-5289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제인 × 세파드
1000 sq. + 완전히 FULL지하실
오후5시 전화요망
☎ : 449-0676

밀크스토아 급매(오타와)
주매상 : $5700
◎스토아 매니저나 후렌차이즈 구함(토론토지구)
☎ : 624-5817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82 김 수 홍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자동차수리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신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86-5655 531-5440 이 화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여행사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양장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위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 × 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함)

회계사무소

R. I. A. 김인규
ACCOUNTING & TAX 844-0178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태권도

손영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홍수 태권도장(사범 박홍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부로 앞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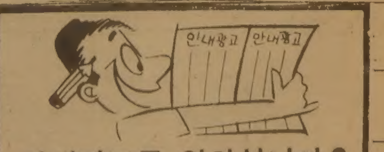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니폰·비데오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씨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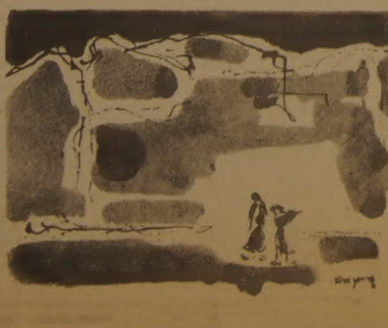
HUNTS BAKERY 케익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2줄 1칸 …… 3회 …… $10.00
●2줄 1칸 …… 5회 …… $13.00
●2줄 1칸 …… 10회 …… $26.00
50자 이내로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우편 도착 다음날부터 게재해 드립니다.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바다에서 플룻을 <8>

金梁順 作
鈴錫 畵



버스가 대관령 휴게소에 정차하였을 때는 벌써 어둠이 먼 곳부터 젖어오기 시작하였다. 높다란 주황빛 등이 주차장을 밝히고 있는 그곳은 이국적인 정취를 고스란히 풍기고 있었다. 습하고 냉한 공기가 차에서 내려서자 와락 무방비한 우리의 목을 휘감았다. 그가 그의 세무코트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코트의 중량감이 털석 어깨에 던져지는 순간 어떤 안도감과 까닭모를 서글픔이 한꺼번에 코트의 무게와 함께 던져오는 것이었다.

광장처럼 널따란 식당에 들어서 우리가 타고 온 버스가 내다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려니까 그가 핫도그와 코피를 스티로폼컵에 담아왔다.

『먹어봐요. 맛 있어요』

나무젓가락에 끼운 핫도그를 건네는 그의 손길에 내 손이 스쳤다. 차가운 손이었다.

『이국적인 분위기 군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휴게소 가득 안개가 들어차 있었고 주황빛 등이 그 안개의 입자들을 비춰주고 있었다.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버스들과 차사이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유리판 속의 인형들 같았다.

『유리판 속의 인형들 같지 않아요』

『아우슈비츠의 가스실 같은데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처연했다.

『잔혹한 연상이군요』

식은 핫도그를 내려놓고 코피를 마시며 내가 말했다. 아우슈비츠라니.

『저들이 죽어야 할 공간, 그리고 저들이 죽어왔을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왜 죽음에 과민하세요?』

그는 이제 이십대 후반, 혹은 삼십대 초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벌써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아니, 한 조그만 여자가 죽어가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는 여전히 창밖의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엄격하고도 비장한 느낌을 내포한 사내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당신이 사랑한 여자인가요?』

나는 그의 엄격한 슬픔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의 무력에 빠지며 그에게 힘없이 물었다.

『내가 사랑한 여자. 바로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읍니다. 그녀가 아름다움을 가꿔왔던 시간과 장소는 이제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읍니다. 육체와 정신이 스러져가고 있읍니다』

『소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소생할 수 없읍니까』 죽음은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의 시린 인식 사랑스러운 여인, 차가운 손을 그리고 내가 걸치고 있는 그의 코트, 이 모든 것들이 무섭게 나를 배반하는 것만 같았다. 한 여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보다 나를 절망시킨 것은 그 여자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의 집념에 가까운 열정, 그것이었다.

나는 그를 만난 지 겨우 세 시간 남짓하였고, 그 죽어가는 여자는 그가 사랑해온 아내인데 왜 내가 이토록 절망하는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내 시야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일어날까요?』

그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먼저 일어섰다. 떠나야 할 차를 세워두지 않았다면 이대로 일어서고 싶지 않았다.

『15분이 됐나요?』

나는 태연을 가장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위니펙 재봉사 위문공연

장소 : 위니펙 AIRLINE호텔
시일 : 1981년12월27일(일)하오7시
가수 : 박소영(폭발적인 정열의가수)
박수영(민요가수)
악단 : 권순근외 3명
단장 : 윤방현(편집자문위원)

주최 : 한국일보사
후원 : 토론토한인회, 영리무역, 동우회
미도파백화점, 위니펙한인회

협찬 : 대사관·영사관·KAL·외환은행
신용조합·한인연합상사·신세계여행사
에코시가구점·고순복한인회부회장·KOTRA
한국관·블로아번영회·한기철한인합창단장
한인장로교회·순복음교회·킴스카메라
최영식·라이온스클럽·실업인협회
이민변호사 협회회장(M. Green)

2ND CLASS MAIL NO. 5248